

할렐루야!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새해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한 결실이 맺히며 생명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담대히 선포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19절

### 미 연방의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다!

#### 퓨리서치, 의회 종교 구성 조사 결과, 미 성인 평균보다 많은 크리스천이 상하원에 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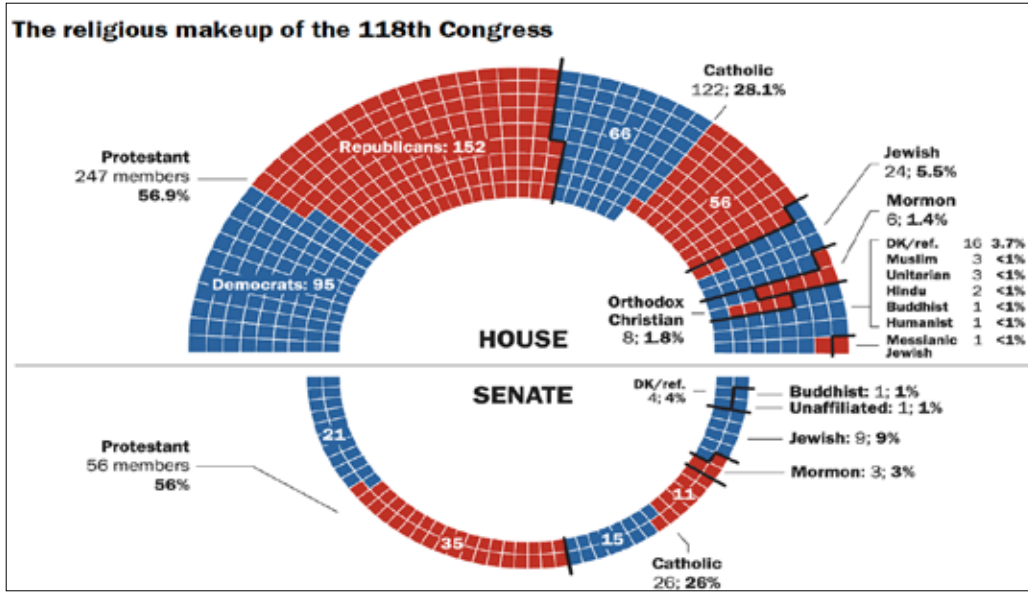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무교인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인 감소 추세와 달리 연방 의회 의원 중 다수는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종교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미 성인 중 62%가 크리스천인 반면, 118대 연방의회에서는 88%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Congress Remains Far More Christian than the Country: Denominational identity is dropping among lawmakers, but few are "nones.").

여론 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집계(Faith on the Hill: The religious composition of the 118th Congress)에 의하면,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제118대 연방 의회 의원(상하 의원 모두 포함) 중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밝힌 의원은 총 303명으로 전체 의원의 약 88%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비해 기독교인 의원 숫자가 6명 줄었지만,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기독교인 의원 외 나머지 의원도 모두 기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종교 없음'으로 밝힌 의원은 전체 534명 중 2명에 불과했다. 키어스틴 시너마 애리조나주 상원의원(독립 정당)은 '특정 종교 없음'으로 밝혔고 재러드 허프만 주 하원의원은 자신을 인본주의자로 분류했다.

미국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78%에서 지난해 2021년 63%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무신론, 불가지론, 특정 종교 없음 등 무교인 인구는 16%에서 약 30%로 급증했다. 반면 연방 의회 의원 중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말 제96대 회기에서 91%를 기록한 뒤 올해까지 꾸준히 80%를 넘고 있다.

이번 제118대 의회 의원 중 기독교인 숫자는 총 469명이며 개신교인이 303명(57%)이 가장 많다. 개신교인으로 밝힌



의원 중에는 침례교인(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리교인(31명), 성공회(22명), 장로교인(25명), 루터교인(22명) 등 순이었다.

가톨릭 신자로 밝힌 의원은 148명(28%), 몰몬교 의원은 9명(1.5%),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메시아 유대교인은 1명으로 조사됐다. 기독교 외 기타 종교로는 유대교(33명), 이슬람교(3명), 자유주의 그리스도교(3명), 불교(2명), 힌두교(2명) 등이다.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거나 밝히기를 꺼린 의원은 20명이다.

한편 연방의회 내 여성 의원의 수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엔 미셸 박 스틸, 영김, 메릴린 스트리랜드 등 한

인 의원도 3명이나 있다. 상하원 540명의 118대 연방 의회 멤버 중 여성이 153명이라 전체의 약 28%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10년 전인 112대 연방 의회의 96명과 비교하면 10년간 57명(59%)이나 증가했다.

상·하원으로 나눌 경우, 상원에서는 25%를 차지하는 25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116대 의회 때와 같은 숫자이며, 118대 하원에서는 여성 의원이 전체의 약 29%를 차지하는 128명으로 지난 기록을 넘어 새로운 최다 기록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임에 도전했던 여성 연방 의원들이 모두 승리한 가운데, 초선으로 새로 연방에 입성한 의원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연임의 경우 하원에서는 105명, 상원에서는 5명

이 각각 성공했다. 여기엔 한인 연방 하원의원 3인방 영김, 미셸 박 스틸, 메릴린 스트리랜드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지난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두 번째 임기를 얻었다.

118대 초선 의원의 경우, 하원에서는 22명(민주 15명, 공화 7명)이었고, 상원에서는 1명이 여성이었다.

당적으로 나눌 경우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118대 의회 내 여성 의원 중 109명은 민주당, 44명은 공화당이었고, 여성 의원은 하원 민주당의 43%, 상원 민주당의 31%를 각각 차지하며, 하원 공화당의 16%, 상원 공화당의 18%를 각각 차지한다.



### 성경 통독으로 은혜가 충만한 새해를 만들어간다!

#### TGC, 필립스 목사가 전해주는 성경 통독의 유익과 4가지 통독 핵심 요소 소개

“성경 읽기의 실패가 결코 믿음의 실패가 아니다”

필 톰슨(PhD ABD,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은 TGC의 디지털 자산 및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 사역한다. 그는 새해를 맞아 성경 통독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요소를 말해준다(Help! I Failed My Year-Long Bible Reading Plan).

내 사무실 선반에는 일곱 살 때 할머니로부터 받은,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된 파란색 가죽 장정의 킹제임스성경이 꽂혀 있다. 이 성경은 할머니가 내게 남긴 보물 중 하나이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다가 “믿다”나 그 동의어가 나오면 밑줄을 그으라고 하셨다. 내가 단어의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면 할머니는 상을 주시곤 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세심하게 말씀을 읽으며 ‘믿다’와 그 동의어에 동그라미 친 어린 시절의 흔적은 성경에 여전히 남아있다.

열 살 때 처음으로 신약성경 통독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는 부모님의 복잡한 감정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한 살이 되어서는 구약 통독까지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해마다 성경을 통독했다. 십대 초반에는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인 선물로 주신 Adventure Bible을 읽었는데, 이런저런 낙서로 난장판이 되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김선중 목사 4면



신앙 에세이 류승렬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가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 2023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화원교회와 목사님들께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49회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2023 새해를 맞이하여 화원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내빈들을 모시고 다음 아래와 같이 “2023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담아 하례 행사보다는 “감사예배”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동포사회 여러 단체들과 함께 소통이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며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신년하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 : 2023년 01월 22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하크네시아 교회(전광성 목사 시무)  
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문의** : 교협 사무실 718-279-1414  
총무 유승례 목사 845-848-2013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회장 이준성 목사
이사장 조동현 장로
총무 유승례 목사
서기 김홍배 목사
준비위원장 이창중 목사

발행인 칼럼

쉽게 기다리는 법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기다림은 역설이다. 설렘과 괴로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이 가져다줄 풍성한 결과에 설렘이 있는가 하면 기다림이 현실이 되기까지 조조함과 불안감에 괴롭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친다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우리 마음에 너무 잘 와닿는 것이다.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이 시간은 너를 위하여/ 기다린 것인데/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그만 기다림을 포기하겠다는 얼마나 애잔한 노래인가. 그러나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욱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런 조급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의 시간표에 끼워 넣으려는 교만이다. 이런 교만을 보이며 기다림을 포기했던 사울 왕은 결국 망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는 세계적으로 수없이 공연된 작품이다. 그는 원래 이 희곡을 불어로 썼고 그 자신이 또 영어로 쓰기도 했다. 그 영어작품의 제목이 'Waiting for Godot'이다. 여기서 'Godot'라는 단어는 'God'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는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주인공 격인 두 남자가 절망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 줄 고도를 기다린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 즉 하나님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이 희곡의 전체 줄거리이다. 이 작품은 인간이 기다릴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는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있다.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다. 기다림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기다림을 쉽게 만든 사람이 있다. 야곱이다. 야곱은 7년의 기다림을 몇 날같이 아주 짧게 여겼다. 무슨 비결이 있었든가.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창 29:20) 야곱은 라헬을 열렬히 사랑했다. 그러기에 그는 칠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도 쉽게 참을 수 있었다. 야곱에게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훨씬 쉬었다. 그리고 보니 야곱은 우리의 선임관에 있는 치사한 남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7년을 그리고 엑스트라 7년까지 아깝없이 투자했던 멋진 상남자(上男子)였다. 바울도 사랑 장(章)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새해에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변화(變化)인가, 번성(繁盛)인가. 성숙(成熟)인가, 성취(成就)인가. 그날인가 주님인가. 천천히 오는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으려면, 먼발치 오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으려면, 기다리는 대상을 열렬히 사랑하자.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과감히 투자하자. 어떤 세월도 짧게, 어떤 어려움도 쉽게 여기며 살 수 있다. 야곱처럼, 바울처럼. 기다림은 역설이 아니다. 설렘이며 또 기쁨이기 때문이다.

새해 "하나님 중심"으로 열어가라!

TGC, 자레드 케네디 목사가 말해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새해 계획 설계 2가지 열쇠

"그리스도 안에서 어엿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낯것의 훈련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동력을 받는 훈련이다"

"목표를 세웠어. 심지어 습관까지 계획을 잡았고 삶의 규칙까지 명확하게 했었지. 하지만 내가 정한 규칙은 바인더에 적혀만 있을 뿐, 삶 속에서 구현이 안 돼. 적당하게 자고 일하고 또 경건의 시간까지 갖는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아무리 수준 높은 계획을 세워도 수요일 오후까지도 채 지속이 안 돼. 모든 계획이 수요일이면 다 허사가 돼." 내 동료의 고백이다.

당신도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되고 싶은 사람, 읽고 싶은 책, 몸매 배게 하고픈 습관까지 다 알고 있지만, 커다란 목표를 일상생활

활이라는 거친 현실 속에 맞춰 끼워넣기 위해서는 고군분투해야만 한다.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바인더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할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원칙과 동기 부여이다.

자레드 케네디(Jared Kennedy, Keeping Your Children's Ministry on Mission: Practical Strategies for Discipling the Next Generation(Crossway, March 2022), The Beginner's Gospel Story Bible(New Growth, 2017)의 저자)는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Herman Ridderbos)가 바울의 "하나님 중심 관점"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목표 설정과 건강한 습관 유지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소개해준다(In 2023, Anchor Your Plans with a God-Centered Perspective).

1.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충만한 훈련에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미래를 내다보는 경향이 있다. 이미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 그러나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먼저 상상한 다음에 역설계(reverse engineer)한다. 비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습관과 헌신에 집중한다.

저자의 말을 관리하는 편집자로서 내가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은 탁월함과 꼼꼼함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The Copyeditor's Workbook(원고 편집자 워크북)이 제공하는 주간 연습을 통해 교정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약보를 보면서 약기를 연주한다. 탁월한 편집자가 목표이기에, 나는 반복해서 교정 연습을 할 계획이다. 이런 건 계획을 세울 때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나는 리델보스로부터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동기 부여는 목표를 내다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되돌아보는 과거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때, 그가 그 명령의 근거로 삼은 건 다름 아니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바울은 죄로 점철된 우리의 과거 삶의 방식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선언한다(롬 6:6).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산 재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을 도전한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과거를 되돌아본다. 그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근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심"(롬 12:1)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엿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낯것의 훈련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전 15:10)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동력을 받는 훈련이다. 주님께서 내게 팔들을 주셨고 아빠로 부르셨기에, 나는 가족 예배와 부녀 데이트를 계획한다. 심지어 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심 영역인 직업에서도 나는 과거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직업 속에 심어놓으신 진리에서 동기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나의 소질과 소명은 다 그분께서 이미 예비하신 결과이다(엡 2:10).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는 것은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활력을 주지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은 그보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한다.

2.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야망을 제어한다.

계획에 충실하려면 결심을 실행하기 위한 일정을 잡아야 한다. 매년 초 나는 이상적인 주간 일정을 담은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한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마다 그것을 참고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수정을 추가한 후, 다음 주 일정을 리걸패드에서 세로 정리한다. 또 아무리 회의와 약속이 많아도 규칙적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일이 적힌 구글 캘린더 일정만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몇 년 동안 나름 꼼꼼하게 스케줄을 관리했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내 모든 열망을 다 채우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 같다. 때로는 게을러서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다. 때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트위터 대신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팔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를 끄기도 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죄 많은 게으름뿐 아니라 지나친 야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직장인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아시며 나의 낱살을 세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주간에는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실행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가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드 드라이브가 망가진다. 아이들은 아프다. 교통 체증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다. 그 결과 매년 2월, 그리고 8월 그즈음이 되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질 때마다, 나는 현실과 일치하는 목표를 만들기 위한 재조정 과정을 가진다. 나는 이것을 속임수 또는 포기라고 보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기도 노트를 집어 들고, 체육관에 가고, 또 자기 전에 책을 읽는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책을 읽지 못하거나 운동을 거를 때면 깨닫곤 한다. 비록 내가 하나님만큼 바라는 것이 많을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3 학년도 Zoom 겨울 특강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 학년도 Zoom 겨울학기 특강을 실시합니다.

모집과정

- 1. 학사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M.Div): 대졸자
4.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 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특전

-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선교 장학금(선교 사역자에 대해서는 50%의 장학금이 지급됨)

2023 학년도 Zoom 겨울 특강

대상: 신학박사 (Th. D) 및 목회학박사 (D. Min) 과정

- 과목명: 타문화권 교회개척 (Inter-Cultural Church Planting)
교수: 박기호 박사 (Fuller 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일시: 2023년 1월 9-11 일, 16-18 일 (오후 7시~ 9:30분)



박기호 교수 EDUCATION BA, CHONGSHIN UNIVERSITY MDiv, THEOLOGICAL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ThM,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ACTS) MA,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문의처: 김동진 학감(626-675-8010)

2023학년도 봄학기

기간: 2023년 1월 30일 - 5월 10일

- (1) 개강예배
일시: 2023년 1월30일(월) 오후 7시
Zoom ID#: 202-901-1366

(2) 개설과목 시간표

Table with 3 columns: Date (7-9:30pm), Course Name, Prof 담당교수. Rows include American Presby Ch History, Wisdom Literature, and Prolegomena & Doctrine of God.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성경 통독으로 은혜가 충만한...

(1면에서 계속)

그러나 대학에 들어와서 상을 받기 위해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성경 통독은 끝났다. 그 시절 나의 영적인 삶은 말 그대로 격벽기를 겪었는데, 하나님과 복음 자체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바뀌었다. 성경 통독에 나 자신을 던질 만한 동기 부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몇 번이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지만, 성탄절 불빛이 환할 즈음 성경에 쫓긴 책갈피의 위치는 언제나 레위기 어디쯤이었다. 몇 년 동안 나는 낙심, 좌절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 십년은 성경 그리고 성경 속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과정이었고, 나와 비슷한 여정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 기간에 나의 성경 공부를 구성한 네 가지 핵심 요소는 연간 성경 통독의 기쁨까지 회복시켰다. 비로소 나는 새롭게 통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1. 기대 수준을 재정의하라.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큰 축복 중 하나는 지난 이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 간 신앙 선배를 만나는 것이다. 그들 중 연간 성경 통독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아예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또는 문맹이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목사와 압송, 경청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 탐구의 자유를 누렸다. 이런 사실은 어쩌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지나다고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를 해방해 주었다. 성경 읽기의 실패가 결코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고 신앙의 선조는 나를 격려하고 가르쳐주었다.



어느 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의대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시간 없다면 그들의 변명을 일축한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예외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신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다음에 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러 엄마를 격려하기 위해 이 예화를 사용했다.

성경 통독과 관련한 기존 기대치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동기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2. 범위를 재정의하라.

성경 전체가 아니라 한 권 읽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건 어떨까? 때때로 적은 게 더 큰 결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특정 성경에 관해서만은 교회에서 알아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일 년을 투자하라. 여러 우물 대신 한 우물을 깊이 파 보라.

성경 한 권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노트를 준비해야 한다. 본문에서 영감을 받아 기도문을 작성하고, 매일 책임감 있는 파트너와 공유하라.

주석을 사용하여 당신의 생각과는 다른 해석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움을 받아라. 해당 성경의 주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단어 연구를 수행하라. 일부 또는 그리 길지 않은 성경이라면 전체를 암송하라. 당신이 교회 지도자라면 연말까지 교회를 위한 학습 지침서를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 그러나 기억하라. 천천히 나아가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기간을 재정의하라.

기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하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마련이다. 직장과 집에서 할 일이 늘어감에 따라서 일 년 동안 매일 같은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반복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이어트와 운동 계획이 대체로 일 년이 아니라 석 달을 기한으로 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도 일 년이 아니라 석 달 통독 계획을 세웠다. 석 달은 내가 바짝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다. 비록 노동집약적이지만, 이 정도 기간이면 몇 가지 일이라도 집중해서 다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목표는 가시적이고 연초 달성이 가능하다.

삼 개월만 집중하는 게 너무 짧게 느껴지는가? 그런데

나는 심지어 한 달 계획을 수행한 적도 있다. 집중 기간을 통해서 당신은 성경에 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더 깊이 할 수 있는 11개월이 남아 있다!

4. 방법을 재정의하라.

목말을 사용하라. 오디오북을 배제하는 순수 독서주의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오디오북 성경은 오디오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초기 신약 교회에서 큰 소리로 읽혔다(느 8:1-3; 딤후 4:13).

역사서(창세기-욥기, 마태복음-사도행전)의 경우에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오디오 성경을 들을 때에도 성경책을 옆에 두라. 필요할 때 더 깊이 연구하거나 메모를 하도록 하라. 마음에 드는 성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ESV 앱은 다양한 성구를 소개한다.

성경은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기록되었다(요 5:39). 성경 연간 통독에 대한 생각을 재정의함으로써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룩한 백성에 속한 한 사람이라면, 새해 계획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세우도록 하라. 동기 부여가 필요할 때마다 그가 당신을 누구라고 선언했는지 되돌아보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야 할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4:1). 리델보스는 이렇게 말했다. “합당하다는 것은 공로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에서 파생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였고, 우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드셨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



시론

갈등의 정치를 넘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 중의 하나는 또래들 끼리의 갈등입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억울함을 영영 울면서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 그 상대쪽 아이의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가운 상황 설명을 듣다 보면 때론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영영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아이가 실상은 자신이 지저분 잘못을 숨긴 채 눈물로 진실을 가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어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내분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의 입장을 듣다 보면 자주 자신들이 잘못된 경우는 살짝 빼고서 상대의 잘못에만 매이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진실성을 스스로 떨어트리는 셈입니다. 더 신뢰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혹은 내 편을 숨겨진 실수와 잘못까지도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국가의 정권이 바뀐 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알았던 많은 내용이 사실과 진실이 아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그런 중차대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정적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공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 그룹'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료들을 복잡하게 뒤집어 가공하여 전혀 다른 결론을 유출한 후 그것을 '전문가'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비전문가들이 국민들의 의견과 판단을 영동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다양성적인 정치인들의 요구에 전문가들이 부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각 시대 정권을 맡은 집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목표에 따라 정치를 할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세운 가치 기준에 근거한 정치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국민들이 그런 정치적인 행위와 선택에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명백한 자료들을 가공하고 수정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지금 정권을 맡고있는 쪽에서 반대쪽을 향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염려스러운 것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되거나 가공된 자료를 만들거나 이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입니다.

모든 자료를 있는 그대로 책상 위에 놓고 의논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민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의 영역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결코 한 정권이 끝난 후 반대편 정권으로부터의 독살과 공격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시장터 아바위꾼들의 행위와 흡사한 것을 정치라고 이름을 붙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 상대편 할 것 없이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제대로된 정치, 새로운 정치가 새해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 된 내 삶 속에서 진리를 세우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샬롬. hankschoi@gmail.com

새해 "하나님 중심" 으로 ...

(2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는 뜻이며, 나의 모든 계획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바울은 시

간과 상황 때문에 계획을 바꾸어야만 했지만, 그 어떤 변동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아멘, 그렇습니다!"라는 그의 확신을 흔들지는 못했다(고후 1:15-20).

바울에게 경건한 훈련이란, "내가 맡을만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함"(골 2:16)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엡

4:1). 리델보스는 이렇게 말했다. “합당하다는 것은 공로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에서 파생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였고, 우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드셨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교회' (East Church) featuring a grid of church branche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매년 새해 첫 주일이 되면...

필자가 스무 살 때였습니다. 3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질병을 은혜로 회복한 직후였습니다. 주님께 새롭게 받은 새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맹세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당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는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예배당에서 마쳤습니다. 새벽기도회를 알리는 종 치는 일로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당에 불을 켜고, 방석을 깔고, 겨울엔 톱밥 난로를 지켰고, 끝나면 청소를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와 성가대... 심지어 교회 재정 장부를 맡아서 기록했습니다. 자주자주 담임 목사가님이 환자 심방할 때마다 저를 불러 동행하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제직원 명단을 임명했습

니다. 거기에 내 이름 석자도 있었습니다. 매우 쑥스럽고 부담감이 짓눌렸습니다. 나는 그냥 "김 선생!"으로 족했는데... 청년회 성경공부 인도하면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조 집사님의 이름이 직분자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집사로 봉사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조 집사님!"으로 불렀는데 새

로운 제직원 명단에 그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모두 다 돌아간 다음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들리는 큰 소리가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집사 임명을 받지 못한 조 집사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스무살 김 선생은 집사 직분을 주면서 왜? 나는 집사 임명을 안하는 겁니까? 이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인가? 교회가 여기 밖에 없는 줄 아세요?' 매우 흥분한 조 선생은 매우 격분한 모습으로 문을 광 닫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가까이 지켜본 나는 매우 처신이 곤란했습니다. '목사님! 왜? 조 집사님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직분 없어도 봉사할 것입니다. 조 집사님은... 실수로 누락하셨나요?' 아무리 여러 말로 묻고 말씀드려도 담임 목사님은 계속 침묵하시면서 고개만 가우뚱하시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국 모든 교회들이 새해

첫 주일에 제직원들 임명하고 밤 예배엔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섭섭했던 조 집사님은 옆 동네 교회 밤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도 역시 제직원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타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나와서 첫 마디가 조 선생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직분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당장 회개하기 바랍니다. 직분은 목사가 주기 전에 교회 머리아신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교 회당에 처음 나와 앉아 있던 조 선생의 정곡을 찌른 말씀에 선량한 조 선생이 회개를 했습니다.'

조 선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담임 목사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성가대도 지휘하셨고 청년들 성경공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담임목사님은 조 집사님을 서리 집사로 끝까지 임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광경을 처음부터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수요일 밤에 서리 집사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일 집사는 끝났지만, 여전히 섭섭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월이 됐을 때 느닷없이 형사들이 조 집사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던 조 집사가 공금을 훔쳐서 숨어있다가 잡혔던 것입니다. 나는 3일 집사 사건을 통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번두리 허름한 개척교회에서 서리 집사 한 사람 세우는데도 살아 계신 교회의 머리아신 예수께서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목격했습니다. 나는 매년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이 3일 집사 사건을 재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나는 새해 첫 주일에 직분자를 임명하면서 3일 집사 사건을 반복하면서 말려 주신 직분에 충성을 외치곤 합니다.

jkim47@gmail.com

# 푸/른/초/장

김선중 목사

(KAPC 세계선교회 본부장대행)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불을 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려서 사명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을 불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애씁니다.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 놓고 화목제와 기름을 그 위에 사들여 불을 끓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라" 말씀합니다.

이 불은 사람이 불인 것인가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불어주시는 불입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

의 불이 불으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찬양, 낮에도 찬양, 차를 타고도 찬양, 일하면서도 찬양,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찬양합니다. 찬송가 가사 하나 하나가 자신의 신앙고백이고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불이 불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 훈련받아서 전도했나요? 물론 전도훈련이 필요하

다. 성경 어디를 파도 조금만 깊이 파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수처럼 솟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거룩한 불이 새롭게 타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거룩한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다. 성경 어디를 파도 조금만 깊이 파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수처럼 솟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거룩한 불이 새롭게 타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거룩한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길이 오늘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불어주십니다. 잘 타지 않던 장작도 함께 모아놓으면 불길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40살 때 고상한 뜻을 가지고 나섰지만 그가 한 일은 사람 죽이고 도망간 것 뿐입니다. 그러나 80세에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 살인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런 종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백성이 돌을 들어 죽이려는 일도 만나고, 죽고 싶을 만큼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광야 길 40년을 완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더 뜨겁게 더 강렬하게 더 높이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 때야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믿음의 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고 마침내 주님이 쓰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있으면 자연히 옆 사람에게 불이 옮겨 붙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거룩한 불이 더욱 뜨겁게,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거룩한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의 거룩한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올라 이곳에 오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을 받아 뜨겁게 헌신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hikapc@gmail.com

#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레위기 6:9-13

많은 분들이 지금 펜데믹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편안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마10: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313년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투옥되고, 굶주린 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산채로 불에 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지켜내야 할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거룩한 불이 매일 매일 타올라야 합니다. 둘째는 겸손, 셋째는 정직입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세상에 서나 교회에서나 실력있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불, 겸손, 진실성 - 이 세가지 중에서 오늘은 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다는 열왕기상 18:24에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6:12-13은 "단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백성에게 축복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놓여 있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레 9:24). 하나님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9절, 12절, 13절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꺼지게 하기 쉽고 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16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9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불을 불어 주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탐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까 고민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불으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무엇을 해도 주님의 큰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의 불이 불으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찬양, 낮에도 찬양, 차를 타고도 찬양, 일하면서도 찬양,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찬양합니다. 찬송가 가사 하나 하나가 자신의 신앙고백이고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불이 불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 훈련받아서 전도했나요? 물론 전도훈련이 필요하

다. 성경 어디를 파도 조금만 깊이 파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수처럼 솟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거룩한 불이 새롭게 타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거룩한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다. 성경 어디를 파도 조금만 깊이 파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수처럼 솟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거룩한 불이 새롭게 타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거룩한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독특성을 망각하고 획일적으로 비교해서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서 거룩한 불이 매일 매일 끊임없이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17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마음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성경을 배운 후에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배우고, 참으로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불이 불습니다. 모하비 사막 밑에는 강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사막 어디를 파든지 깊이 파면 지하수가 솟아난다고 합니

다. 성경 어디를 파도 조금만 깊이 파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수처럼 솟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거룩한 불이 새롭게 타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거룩한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이 불이 식어지고 꺼지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독특성을 망각하고 획일적으로 비교해서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서 거룩한 불이 매일 매일 끊임없이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17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마음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성경을 배운 후에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배우고, 참으로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불이 불습니다. 모하비 사막 밑에는 강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사막 어디를 파든지 깊이 파면 지하수가 솟아난다고 합니

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길이 오늘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불어주십니다. 잘 타지 않던 장작도 함께 모아놓으면 불길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40살 때 고상한 뜻을 가지고 나섰지만 그가 한 일은 사람 죽이고 도망간 것 뿐입니다. 그러나 80세에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 살인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런 종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백성이 돌을 들어 죽이려는 일도 만나고, 죽고 싶을 만큼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광야 길 40년을 완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더 뜨겁게 더 강렬하게 더 높이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 때야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믿음의 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고 마침내 주님이 쓰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있으면 자연히 옆 사람에게 불이 옮겨 붙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거룩한 불이 더욱 뜨겁게,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거룩한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의 거룩한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올라 이곳에 오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을 받아 뜨겁게 헌신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뚝배기와 장맛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있다. 뚝배기의 존재 목적은 장맛을 위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 좋아도 본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장의 맛에 방해가 되는 뚝배기라면 제 아무리 예쁜 것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포도주와 부대에 비유하면, 부대가 너무 낡아서 귀한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면 결국 그 용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을 말씀하셨다. 새 포도주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당신,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를 새 시대의 새 부대에 담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공생애 사역 내내, 당신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다. 복음을 담고 나누는 그릇,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새

교회는 그 자체로 존재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월이 가면 허물어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충만한 영원한 집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 주셨다. 이들 120문도를 향해 유대인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말씀의 성취였다. 새 포도주되신 주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담고 나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생명의 새 부대를 만든 것이다. 옛 것이 낡아서 새 것을 대신하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된 것이다.

참 생명의 복음과 교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다. 그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께 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생명을 받아 먹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 생명을 담는 가족부대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잘 받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담은 가족부대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부스러지게 된다. 예수 생명을 모신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데, 부대는 낡아져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되고 고착화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포도주의 생명력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구약의 성전 뿐 아니라,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들도 복음의 그 새로운 능력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엄청난 역부족이다.

결국,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복음의 심심한 생명력을 담아내지 못할 때, 낡은 포도주가 버림을 받듯이 버려지고 말 것이다.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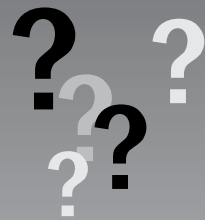
곳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었다. 평신도들의 경우는 얼마나 그 마음이 더할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주님의 원하심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탐방했던 교회의 잘못을 말함이 아니라, 잠시 잠깐 들었던 나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상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 뜻 없이 어떻게 복음의 부대들이 곳곳에 이토록 세워질 수 있던 말인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만약 그 뜻을 발현하지 못한다면, 실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찌감치 문을 닫아야 마땅한 일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분명히 크든지 작든지, 교회는 그 자체로 존재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존재 근거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실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질문합니다. 레위기 13:9-17 절을 보면 제사장이 문둥병 즉 나병을 진찰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몸에 부분적으로 나병이 발생하면 부정하다고 하고 오히려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고 진찰 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병이 몸 전체에 퍼지면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보다 더 부정할 텐데도 제사장이 정하다고 말하는데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비치에서 Lee

“속에 불신앙으로 가득한 자는 죄를 자복하는 자보다 더 악하다”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병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간음죄를 문둥병으로 보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였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처를 문둥병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같다고 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문둥병은 처음에는 사소한 딱지 같은 것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악도 처음에는 사소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레 13:12-13절의 질문하신 내용을 주석합니다.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나 다 회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보통으로는 문둥병이 부분적으로 색점이 생기는 법입니다. 문둥병자에게 흰점과 흰털이 있을 뿐 아니라 색점이 발견되고 난육이 생기면 그것은 진성환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이 경우에는 갑자기 전신에 흰빛이 퍼져 버렸습니다. 이런 문둥병은 사실상 내부의 병독이 모두 밖으로 발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둥병은 그것으로 중지부를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것을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악을 내부에 깊이 간직하여 있지 않고 외부로 토하고 마는 것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죄악은 내부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외부에만 그 죄상이 나타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양이 깨끗한 것 같이 보여도 속에 불신앙이 가득한 자는 노골적으로 죄를 자복하는 자보다 더욱 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을 제사장이 검사한 결과 그 병자가 치료된 때에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린 것과 같이 문둥병은 죄악의 상징으로 취급되는 증표입니다.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문둥병같은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사 고

1월 7일자 신문은 신년 정기휴간일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복음의 본질이 터치되는 현상을 농침으로 나타나는 현상 일 것이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와 중간교회도 있고 여러 형태와 사이즈의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사이즈는 하나님앞에서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누리고 나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나누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을 잘 담고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이즈는 상관없다. 큰 교회라고 이상한 눈으로 볼 것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할 것도 없다. 오직 한가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잘 담고 있으면, 크다고 타락하지 않을 것이며, 작다고 해서 예소한 마음 가지지 않을 것이다. 작지만 나는 복음의 뼈대있는 명문 교회에 다닌다고 더 자존심 세계 교회자랑하지 않겠는가?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모두 주님의 생명복음의 포도주를 담고 나누는 새 부대가 되면 되는 것이다.

davidr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새 포도주 새 부대, 생명을 담고 나누는 교회

포도주는 새 부대를 필요로 함을 말씀하시면서, 신약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담은 참된 부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약교회에 예수 생명이 가득 찬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예수님, 예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 생명을 노래하며 전하는 곳, 예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새 부대, 교회와 언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기존의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선포하셨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담아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3세에 성전에 처음 가셨을 때부터, 그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다. 그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본질을 상실한 그릇 껍데기는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바친 성전이라 하였는데, 그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짐이 마땅하다는 뜻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가진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 보여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야 한다. 진리는 항상 새 것이라 의미는 아니다. 새로운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생명을 간직한 가르침이기에 쇠퇴하거나 낡아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는 것이다. 그토록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손길을 거친 성경의 교훈이 오늘날에도 항상 새롭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복음이 항상 새롭게 다가오고,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보면 이 가르침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의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항상 새로운 것이었고, 새로운 감격속에 많은 전도자들이 피끓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능력(DIUNAMIS)의 복음으로 증거되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기적 같은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왜 포도주에 비유했을까? 포도주의 붉은 빛은 피를 상징한다. 성령에서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함이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함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된

곳이 생각해본다. 과연 나와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새 부대로서 늘 새롭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지만, 개혁의 과정을 지나면서 날마다 새롭게 예수 생명을 넘겨주어 풀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교회환경의 변화 앞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 한국의 유명 강사 목사님들이 집회 때문에 많이 바빠졌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밖으로 잘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 목회자들이나, 교단내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은 명함(?)도 잘 못 내놓는다는 것이다. 교회의 유익함을 떠나, 일대 유명한 가수나 텔러 등 이름이 알려진 간증자들이나 이름있는 목사가 아니 고서는 관심 자체도 없다는 것이다.

교회가 관심을 끌기에도 부족한 곳이 되어버린 세태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 타주에 있는 규모있는 교회를 교역자들 수련회를 겸해 방문하게 되었다. 담임목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교회 이곳 저곳을 돌아보는 데, 정말 모든 교육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교회였다. 목사인 나도, 이 도시에 이사를 오면 이

이 지상에서 사이즈를 떠나, 모든 크고 작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본질을 생각하면 답이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집이 가난해도, 그 집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라면 그들을 가리켜서 명문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식구가 김치하나 밥 한 공기를 두고 둘러앉았다 하여도, 아버지 먼저 숟가락 드시기를 기다리는 가정은 명문가문의 싹을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작고 초라한 외관이라도, 사람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도,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명문 교회이며,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외관이 훌륭하고 좋아보여도, 예수 생명의 복음에 터치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버리시는 낡은 포도주 부대가 될 뿐인 것이다

본질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느 대형교회 부교역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좋은 시설과 환경에다가, 모든 사역 조건이 부족함이 없고, 성도들도 교회 오기만 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곳임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축복은 누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목회단상**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행복한 새해를 위하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해를 허락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리라 믿습니다. 행복은 살아가는 인생의 특

권입니다. 행복은 살아가는 인생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큰 자산이요 보람이요 축복입니다. 인생의 지고의 목적은 주님 안에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 너는 행복자라다” 말씀 합니다. 모쪼록 허락 받은 이 소중한 새해를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혹자는 밀레가 그린 만종이던 그림을 통해서 인생의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을 말하

기도 합니다. 해 저무는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친 젊은 농부부부가 어린 아기를 곁에 두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행복의 조건 세 가지는 첫째는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세 가지 신성을 발견 한다고 철학적 해석을 합니다. 이를테면 밀레의 만종을 통하여 우리는 노동의 신성을 보게 되고 가정의 신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 되어야 인간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의 조건은 다가지기도 쉽지 않지만, 다 갖추다 해도 그것을 통해 얻는 행

복은 불안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행복이 아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행복은 절대적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설령 인간적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지라도 가능한 절대적 행복 말합니다. 성경은 이 절대적인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절대적인 행복을 가르치고 전하고 누리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참다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일시적이며 조건적임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구적이며 초월적입니다. 셋째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 할 때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축복 하시면서 소명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넷째는 죄를 사함 받아야 행복하게 됩니다. 참으로 행복하려면. 내가 죄에서 사함 받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개인도 사회도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을 받아야 행복하게 됩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행복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온 크리스천들은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cyd777@hotmail.com](mailto:cyd777@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저널리즘” 단호한 보복, 한·중 관계 ‘경쟁’**



중국 정부가 10일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한 한국에 ‘눈에는 눈’ 식의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중 관계는 또다시 고비를 맞았다. 세계 각국이 방역 강도를 높인 건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폭증한 감염자와 사망자 수, 변이 출현 여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런데도 중국은 상응 조치를 앞세워 가장 먼저 한국을 겨냥했고 이에 따라 반중 감정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의 한국 국민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첫 전화통화를 한 다음 날 이뤄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 부장은 9일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자국 SNS인 위챗 계정을 통해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방침을 알렸다.

2017년 중국의 사드(THADD·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바닥을 친 한·중 관계는 지난해 수교 30주년 계기로 진행된 고위급 소통과 민간 교류로 조금씩 정상화되는 분위기였다. 중국이 3년간 유지했던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면서 국민 간 왕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감정은 더 나빠지게 됐다.

앞으로 관건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 외 다른 나라에도 방역 보복 조치를 하느냐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말하는 상응 원칙은 내가 1대 맞았으니 나도 똑같이 1대 때리겠다는 게 아니다”며 “나는 때릴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어떤 방식이든 그것을 행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방역 강화에 신중한 입장 이었던 독일은 9일 “중국에서 출발해 독일에 입국하는 12세 이상 여행객은 중국을 떠날 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여행 자제를 촉구했다. 독일 외교부는 “중국은 코로나 감염 절정을 맞았고 보건 체계는 과부하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도입한 영국은 지난 8일부터 변이 추적에 중국발 승객 업무를 대상으로 입국 후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도 프랑스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중국인에게 코로

나19 음성 결과를 제시하게 한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음성 증명 제출 등에 더해 중국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美 6세 초등생, 엄마 총으로 교사 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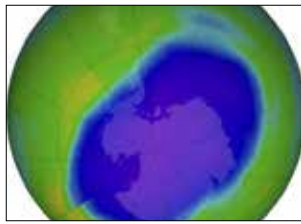
자신을 혼내하던 교사를 권총으로 쏘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초등학생 1학년생이 집에 있던 총을 가방에 넣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은 학생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항구도시 뉴포트뉴스시의 스티브 드루 경찰서장이 9일(현지시간) 수사 브리핑에서 지난 6일 리치백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ABC뉴스 등이 보도했다.



드루 서장은 이 학생이 수업 도중 집에서 가져온 총을 꺼내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25)를 겨냥한 뒤 발사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이 총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으며 총격 전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 부모의 말을 인용해 “교사가 총을 압수하려고 하자 학생이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드루 서장은 “교사는 총이 발사되자 방어하기 위해 손을 들었고 총알은 손을 관통해 가슴 위쪽에 꽂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교사가 피격 직후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다친 학생은 없었다고 전했다.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모두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교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교 직원이 총소리를 듣고 교실로 와서 학생을 제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이 직원을 때리기도 하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도착해 학생을 연행했으며, 피격당한 교사는 현재 지역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리치백 초등학교는 이번 주 내 학교 문을 닫기로 했다.

**유엔 “오존층, 두꺼워지고 있다”**

태양의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지구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점차 두꺼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층 보호를 위해 유해 물질 사용을 줄이기로 한 국제적 노력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유엔 과학자들은 현재 속도라면



2040년대 세계 대부분 지역의 오존층이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는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2 오존층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은 1987년 몬트리올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지 35년 만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중 염소 비중은 1993년 정점 대비 11.5% 줄었고, 브롬 비중도 1999년 고점 대비 14.5% 줄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공기 중 화학 물질 CFC-11의 전 세계 배출량도 2018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과학자들은 당시 중국 북동부의 단열제 생산 공장에서 CFC-11이 배출돼 대기 중 농도가 급증한 것을 발견했었다.

이번 보고서를 이끈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고다드우주비행센터 수석 지구과학자 폴 뉴먼은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중국 배출량이 감소했다”며 “중국 정부 등이 취한 조치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면 극지방 사이의 오존층은 2040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극의 경우 2045년, 남극은 2066년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정부 시위’ 이란 축구선수, 사형 가라스로 면했다**

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란 당국에 붙잡힌 축구 선수 아미르 나스르-아자다니(26)가 사형을 면했다.



9일(현지시간) 반관영 매체 통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나스르-아자다니가 보안군 살해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나스르-아자다니는 지난해 11월 16일 이스파한에서 시위에 참여해 민병대원 등 보안군 3명의 살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스르-아자다니가 기소된 죄명은 ‘모하레베’(알라의 적)로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를 의미한다. 이 죄는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이후 도입된 반정부 활동을 한 이들에게 주로 적용됐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형으로 사형이 선고된다.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앞서 나스르-아자다니가 이란 수사 당국의 강요로 인해 억지 자백을 했고, 이로 인해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지난달 이란 당국에 나스르-아자다니에 대한 사형 선고를 취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란 사법부는 이날 나스르-아자다니 사건과 별개로 이스파한에서 보안군을 살해한 시위대원 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현재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시위 참가자를 모두 17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4명에 대한 사형은 집행됐다. 이란 정부의 사형 집행 소식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강요에 의한 자백에 기초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다”면서 “모든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엠네스티도 이날 사형 집행과 관련해 방

어런 보장 등 정당한 재판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란에서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22)가 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돼 이어지고 있다.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해 말 기준 508명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집계했다. 구금된 시위 가담자는 1만9000여명에 달한다.

**美 비상 걸린 이 마약 정제**

미국 내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동물용 마취제 ‘자일라진(xylazine)’을 섞은 마약을 오용하는 경우가 급증해 미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일라진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수의사들이 말·소 마취제나 고양이 구토 유발제로 널리 쓰는 동물용 의약품이다. 1962년 개발됐고 상표명은 ‘렘폰(Rompun)’이다. 미국에서는 ‘트랭크(tranq)’ ‘좀비 약(zombie drug)’ 등의 속어로 불리기도 한다.



NYT에 따르면 자일라진을 펜타닐 등 마약에 섞어 주사로 투입할 경우 팔다리 등에 괴사 딱지가 생기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을 시 팔다리를 절단하게 될 수도 있다.

자일라진 혼합 마약은 투약 시 여러 시간 동안 정신을 잃기 때문에 성폭행·강도 등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일라진을 아편류 마약과 섞어서 투약한 경우, 과량 투약했을 때 해독제로 쓰이는 ‘날락손(naloxone)’ 투여 등의 표준 치료 방식이 제대로 듣지 않을 우려도 크다.

자일라진 혼합 마약의 금단증상 역시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투 아티스트인 브록 페더(38)는 NYT에 자일라진 혼합 마약을 투약했다가 뼈까지 상처가 번져 1년 전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그는 금단증상을 견딜 수 없어 여전히 해당 마약을 주사하고 있다. 5개월째 재활 치료 중인 다른 환자는 팔과 다리를 하나씩 절단한 어떤 환자가 절단된 다리의 남은 부분에 주사바늘을 찌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폐해가 큰 자일라진 혼합 마약은 미국 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YT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DC뿐 아니라 50개 중 36개 주에서 유통되는 마약에 자일라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 유통이 성행하는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마약 중 자일라진이 함유된 사례가 90%를 넘는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다. 뉴욕시에서 유통되는 마약 샘플 중 25%에서도 자일라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NYT는 자일라진이 미국 내 규제 약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한 약물 검사가 늘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얼마나 퍼져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61. 정원명 (1881-1942)

정원명은 1881년 11월 20일에 평안남도 평양에서 정창규와 김 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는 1888년부터 4년간 평양에 있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상무방의 사환으로 2년간 있다가 1894년부터 과일 상점을 하였다. 1899년에 평양 숭실 학교(7)에 입학하여 3년간 공부하면서 저녁에는 '편학회'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였다. 영어를 잘하는 그는 1902년에 평양 장대한 교회회를 섬기던 그레이함 리 선교사의 요리로 들어가 1년간 일하면서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1904년에 정원명은 하와이 노동 이민선 '차이나'를 타고 그해 2월 8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에와 농장에서 그는 4년간 한인 노동자를 위하여 '통번'이 되어 영어 통역을 하면서 한인 노동자와 농장주 사이를 중재하고, 감독의 지시사항을 한인 노동자에게 알려주며, 캠프에 남은 사람을 점검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한인 노동자의 어려움을 돌보아 한인 사회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에와 농장에서 노동하던 김익흥은 이만춘과 함께 정원명의 말에 감동하여 회개하게 되었다면서 표창하여달라는 편지를 공립신보에 보낼 정도였다.

정원명은 윤병구 등 통역인과 함께 하와이에 온 이듬해인 1905년 5월에 한인 노동자의 환난상을 뿐만 아니라 항일운동과 일화 배척을 위하여 에와 친목회를 조직하고 이듬해에 회장을 역임하면서 친목회보를 발행하였다. 이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에와 친목회를 중심으로 하와이 동포와 협력하여 동정금을 모금하여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한 샌프란시스코 인근 한인 동포에게 27달러를 보냈고, 1907년 2월에 대구에서 서상돈 등의 제안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지는 이른바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56달러 25센트를 모금하여 한국에 보내 국제 보상에 함께 했다.

1907년 6월에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조약을 강요하였으므로 그해 9월에 하와이에 나뉘었던 에와 친목회 등 24개 한인 단체가 '한인 합성협회'를 조직하였는데 초대 총회장이었던 임정수가 사임하여 정원명이 취임하였다. 영어 통역을 하던 정원명은 1908년 2명이었으며, 성인 세례교인이 4명이었고, 어린이 세례 교인이 9명이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학습을 받은 교인이 무려 36명이나 되었다. 주일학교에는 5명의 교직원과 40명이 등록했고, 엠플러스 청년회에 16명이 등록하였다. 예배당은 2년 전과 같이 시가 1,200달러로 여전했으나 1년 동안 현금만 액수인 360달러는 적지 않았는데 이 중 훈련 현금이 20달러였고, 그 외 현금은 일반 현금이었다.

한편 호놀룰루에서는 1914년 말 하와이 선교 연회 감리사와 한인 여자학원 원장이었던 이승만과의 선교 견해 차이가 심마리가 되어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국민회에서 3,000여 달러로 매입한 토지를 한인여자학원에 기증하였는데 기증 과정에서 한인 사회에 물의와 분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하와이 선교 연회는 이승만을 한인기독교 교육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교회는 한국에서 부흥사로 잘 알려진 김유순

원명을 오아후섬 에와 지역의 한인 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이날 임준호 목사도 작년에 이어 본 지역 순회 전도 목사로 파송이 되었다. 이달에 접수된 보고에 따르면 등록된 학습 교인은 4명이었고, 등록된 세례교인은 31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인 5명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7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가 18명이었다. 주일학교는 하나가 있었는데 교직원 5명이었고, 41명이 등록했으나 엠플러스 청년회는 없었다. 1,200달러 시가의 예배당이 있었는데 한 해 동안 연료와 전기 등에 지출한 비용이 135달러였다.

1918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한 제13차 하와이 선교 연회를 인도한 에드나 W. 레오나르드 감독은 송지S와 함께 정원명을 오아후섬 에와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했다. 그런데 1912년부터 1915년까지의 하와이 선교 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2, 3년 전부터 권사로 파송을 받아 그의 신실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원명 이외에도 이날 목사로 임준호를 파송했으며, 흥성모를 권사로 파송했다. 2년 전에 비해 여러 사람을 더 파송한 것으로 보아 에와 지역에 한인 노동자의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달에 보고된 마로는 등록된 세례교인이 2명이었고, 등록된 학습 교인이



에와 한인감리교회 (1907년)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1922년)

목사를 초빙하여 각 지역에서 10개월이나 부흥회를 인도하여 교회 화합을 노력했으나 교회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마침내 1918년 7월에 이승만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를 떠나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 세워진 교회라도 해서 '신립교회'라고 불렀다. 이 신립교회가 4개월 뒤인 그해 12월에는 '한인기독교회'로 정식 명칭을 표방하면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의 초대 목사였던 민찬호가 부임하였다. 이러한 분열로 말미암아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상처로 남았고, 이런 분열 양상은 하와이 5개 섬에 있는 한인 교회도 서서히 번져 나갔다.

하와이 선교 연회 감독이었던 매트 S. 휴즈 박사가 1919년 3월에 제14차 하와이 선교 연회를 소집했다. 휴즈 박사는 작년에 정원명을 에와 한인감리교회로 파송하였는데 작년과 달리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로 파송하였다. 본 연회는

를 보고한 다니엘 H. 클라인펠트 목사는 가까운 장래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 교회 사업이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

1920년 2월에 개최한 제15차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는 지방 전도사와 권사 파송 명단이 없었지만 정원명을 파송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파송명단이 없어 정원명의 파송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1917년 하와이 선교 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그의 파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전후를 살펴보면 그가 파송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정원명이 1916년 2월 이후 1920년 2월까지 4년간 에와 한인감리교회와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서 권사와 전도사로 사역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16년 이전 2, 3년간 권사로 파송을 받아 그의 신실성을 확정한 후 전도사로서 파송하였다고 추증한다면 그의 사역은 6, 7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1920년을 전후하여 가구업을 경영하던 정원명은 이전에 활동하였던 민족 사랑을 계속 이어 나갔다. 그해 그는 환사용 등과 대조선독립단의 중심이 된 국민 공동회에 참여하였고, 이듬해 정원명은 호놀룰루에서 사업하던 한인 실업가들과 뜻을 같이하여 호놀룰루 한인 상업회를 조직하였는데 1년 후인 1922년에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듬해에는 한인기독교청년회 회장을 맡았고, 그해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학생기숙소가 설립되었을 때 안원규와 함께 이사부원으로 임명되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에 1925년 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정원명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기관지 단산시보를 발행하여 후원에 박차를 가했다. 1928년 2월에 하와이 한인 지도자 29명이 모여 한족 통일독립당총성회를 결성하였을 때 정원명은 의사부 의원을 지냈다. 1930년에 하와이 한인협회 위원을 역임했고, 1934년에 대한인국민회와 대조선 독립단 합동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1936년에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국민총회 참의원으로 활동했다.

정원명은 1942년 6월 23일에 호놀룰루에서 향년 6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아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2014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정원명에게 그의 나라 사랑을 기려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 한인 노동자의 어려움을 돌보는 한인 사회 지도자 에와,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와 전도사 사역 호놀룰루 한인상업회 회장, 한인기독교청년회 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원회 회장

이날 방화증을 목사로 파송했으며, 이날 파송 받은 지방 전도사에는 안원규, 남새운, 황계수가 더 있었다. 교회 분열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교회 분열의 여파로 인하여 정원명에게 교회 사역은 큰 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1920년 2월에 보고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세에 따르면 세례교인이 3명, 어린이 세례 교인이 8명,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하여 교육받은 어린이 세례 교인이 2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습 교인이 약간 명이고, 지난 한 해 동안 학습을 받은 학습 교인이 5명이었으므로 지난 1년간 교세가 상당히 약화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 방화증이 목사직을 사임한 가운데 그 대신에 흥한식이 부임한 것으로 보고되어 그 어려움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주일학교에는 5명의 교직원에게 60명이 등록하였고, 엠플러스 청년회에는 중등부에 22명이 등록하였고, 고등부에 8명이 등록하여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는 젊은이로 인해 희망적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달에 있던 연회에서 감리사를 대신하여 한인 교회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어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오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949) 481-4898 / www.lsgc.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수요학교: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scs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사리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새벽기도회: 오전 12:00 영아예배: 오전 12:00 영아예배 (영·중·고): 오전 12:0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금요양생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김옥,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국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cda.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 (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8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성인영어예배: 오후 7:30 일일예배: 오후 1:30-5:00 (월-토) 일일예배: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hel@kbc.org / www.k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p>	<p><b>세계선교회</b>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 (213) 388-13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enter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b>실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 (수일) Clubhouse 3 room (1부)</p>	<p><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b>엘피스사역원</b>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선교회총회총무)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화인구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6:00 (토) 일일예배: 오후 1:30-5:00 (월-토), 3:55-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0, www.gaoc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 (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금) 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Tel: (714) 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310) 530-4040 (CH), www.cornestone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히슬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수요일: "영성강화 일러저널" 오전 9:30 오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3)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1장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 (2)

2) 죄가 불러오는 가공할 죽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으며 거룩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예배, 혹은 영생에 대한 생각이나 언급 속에서 구세주를 만나지 못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불멸의 영혼에 부주의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분을 회심을 위해 자기를 성찰하거나 주님 앞에 나타날 준비를 위해 생각하는 일에 단 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두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지음으로서 여러분 자신들을 무신론과 배교

즉 당신은 진노의 날까지 이 세상에 단지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욘 21:30).

그 심판은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심지어 당신의 영혼은 그 심판으로 다가가고 있다. 잠시 후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죽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이 지금 무시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은 이후에 당신은 대답할 수 없는 논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반대하기 위해 핑계를 대던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늘어놓아 보라. 당신은 반드시 그 심판자 앞에 심판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라!

이런 것들을 하거거리면서 대답하게 계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판은 오랫동안 꾸물거리지 않는다(벧후 2:3-5). 여러분은 심판을 위해 간수되어 있으며(벧후 2:8,9), 여러분은 지금 최후를 생각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신 32:20).

(3) 왜 여러분에게 영광과 영생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하는가?

여러분은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귀함을 알았지만 그것을 멸시했다. 영생의 확실성과 영광과 복락들도 조금은 알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우선적으로 부지런히 추구하지도 않고 있다(히 6:16, 12:28; 마 6:13).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무시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가장 복된 삶을 위해 분발해야 하겠는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는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는가?

(4) 회심한 삶과 회심하지 않은 삶은 이 세상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절한 삶과 선택한 삶 사이에는 여기 이 지상에서조차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만 교제를 나누지만,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천국에 대해 여러분들은 자기

는 짐승들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5) 회심하지 않은 삶은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내가 만일 여러분처럼 회심하지 않은 육적인 상태에 있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내 생각에 내 삶은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선행하게 죽음과 지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며 어떤 모임에 참석하건 간에 별로 즐거움이 없을 것이며,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눅 12:20).

(10면으로 계속)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은혜로우시며 두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

에 빠뜨리는 죄를 범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은혜로우시며 두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1) 죽음 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하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대적하시면 그 불쌍한 영혼이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 그분이 한번 얼굴을 찡그리시면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 완전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당신을 유혹했던 마귀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당신을 가지고 놀려고 하겠는가? 그는 기어코 당신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 그 한순간에 당신은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단지 당신의 감옥일 뿐이다.

(2) 죽음은 신속하게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지금 좀 더 윤택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즐겁게 한 모금 마시거나 한 입 더 먹으려고 하며, 좀 더 이 세상에 제 이름을 내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일들이 부질없는 짓거리가 될 그 죽음의 순간이 오면 당신이 소유한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며, 당신의 쾌락들은 끝장이 날 것이며, 당신이 마음에 두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에 빠져 있으며, 즐겁게 여러분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죽음이 여러분을 잠자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게나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와 상태로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가기 위해 지금 급하게 오고 있다. 죽음보다 일을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자는 없다. 그때 여러분이 좋아하던 운동이나 오락거리들은 어디 있겠는가? 그때에도 여러분이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떠나보냄과 맞이함

2023년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새해가 따로 구분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구분해 놓은 한 해라는 경계선은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것을 맞다는 의미를 준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해를 맞자는 뜻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여 새해 첫 시작을 카운트다운 하며 서로를 축복한다. 새해와 함께 짧았던 겨울 방학이 끝나고 다시 불학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주 동안의 성탄 휴가로 집에 와있던 막내가 떠난 자리가 마냥 허전하지만 이제 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새해를 맞으며 일년 떠나보내야 할 물건들이 있다. 추수 감사절이 지난 후 바로 세워 놓았던 크리스마스 트리와 피아노 위에 줄지어 세워 놓은 친구, 지인들의 성탄 카드들 거둬들여 버렸다. 푸른 잎 사이로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일까, 아니면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일까 크리스마스트리는 해마다 동화의 나라로 데려가듯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다.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숲속의 은은한 향기를 옮겨다 준 생나무 냄새를 충분히 즐겼다. 일년이 가도록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낸 멀리 떨어져 사는 지인, 친구들의 가족 사진이 담긴 카드들, 바쁜 가운데서도 안부를 묻는 내용을 정성스럽게 적은 카드들도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크리스마스트리도, 카드들도 다 치울 때가 되었다.

떠나보내는 일은 늘 어렵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물건을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 떠나보내는 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보낸 이후에 남는 미련, 후회, 그리고 자책 때문인 것 같다. 떠나보낸 빈자리에 남아 지났던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떠나보낸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생생한 모습으로 불쑥 불쑥 기억을 헤집고 나타나서 눈물을 짓게 하기도 한다. 떠나보낸 세월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래서 잘 떠나보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떠나보낸 빈자리에 어렵더라도 한 치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옛것을 떠나보낼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감추어져 있다. 새로움에는 설렘도 있지만 알 수 없음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열릴지 알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데에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 된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다. 그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의 음성은 주변의 소음을 잠잠하게 할 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떠나보냄과 맞이함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 일년내내, 매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분하여 새해라고 이름 지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그분의 음성에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난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너무나 익숙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길을 알 수 없는 새해를 맞을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고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용감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Main Title: 기타지역 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안인교회, 알칸사 제자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우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지난 한 해 있었던 일들 중에서 무엇이 마음에 남아 있는가? 큰 성공을 이뤘거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들이 이뤄지는 것 같은 좋은 일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도 하겠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2022년은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적당히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가 아닐까? 지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지나온 기억들을 어느 정도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의 기억은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듯이 새로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잘 기억하고 잘 되새겨서 내 삶을 선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들이 자주 기억나서 머리가 굽혀져 있다면 그것도 참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기억나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이사야 43:18)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과거를 다 잊어버려야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사람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더욱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의 놀라운 승리를 이제는 잊어버리라는 의미이다. 과거에 주님께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의 받았던 은혜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

아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립보서 3:13)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사도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글을 남기고, 많은 사람 또한 남겨 놓았지만, 그런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놓은 업적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지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자칫하면 ‘왕년에’, 요즘 말로 ‘라떼’에 취하기 쉽다. 내가 지금까지 해 놓은 일, 쌓아 놓은 것들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특히 요즘처럼 무언가 성취를 만들어 내기 힘든 시대에는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과거에 체험했던 화려한 추억을 되새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과거

의 영광에 취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아니, 도리어 더 큰 역사를 이룰 테니,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신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이사야 43:19)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기독교 역사가 광야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 편안하고 넓은 길을 걸어갈수록 교회가 더 타락했던 경우를 지난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에 광야 같은 시간이 도리어 더 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사막이 도리어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받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2023년이 비록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실 주님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wmclakim@gmail.com



월드쉐어USA 활동설명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월드쉐어USA 활동설명회 가져

우크라이나에 후원금 1만불 전달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지난 12월 28일 오전 11시 강남회관에서 활동설명회를 갖고 우크라이나나 겨울 나기 돕기 중간사역보고 및 기독교 문학산책 1,2권 판매 수익금 1만불 전달식을 진행했다. 강태광 목사는 “지난 2017년부터 월드쉐어USA 사역을 하며 5년을 보냈다. 특별히 사랑으로 도움주신 여러분들과 언론에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활동에도 사랑과 관심으로 돕고 기도해 주시는 지도위원 목사님들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후원해 주시는 지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일반 후원자들에게 감사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강 목사는 “우크라이나에 전 쟁이 발발했을 때 1주일간 기도

하며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를 준비했다. 월드쉐어의 행정비에서 우크라이나 후원금을 마련하여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을 시작한 뒤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와 격려를 해주었으며 도서구입에 동참해주셨다. 특별히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이 5천 달러를 흔쾌히 후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내 책을 읽고 감동으로 1만 달러를 내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울며 기도한 적이 있다. 이런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광견섭 목사(예은장로교회 담임)의 개회 기도으로 시작된 활동설명회에는 우크라이나 돕기 자문위원들이 함께 했다.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 청교도 신앙본부 운영위원장)가 강태광 목사의 인문학 시리즈 발간 판매 활동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유클리 사장)가 월드쉐어USA의 활동에 대한 격려사를 전했다. 송정명 목사(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월드쉐어USA의 지난 5년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했다.

이어진 도서(기독교 문학산책 1,2권) 판매 수익금 전달식에서 강태광 목사는 아이티 교회당건축프로젝트의 회계담당인 박세현 목사(예수로 교회 담임)에게 본인이 집필한 저서를 판매한 수익금 1만 불을 전달했다. 이날 모임은 민경엽 목사가 월드쉐어 사역과 선교사를 위한 기도인도를 한 뒤 마쳤다. 한편 강태광 목사는 월드쉐어 USA 활동과 더불어 종합선교활동을 위해 생명의 빵 나눔운동(Sharing Bread for Soul)이(SBS) 사역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본부(SBS)는 세 분야로 나누는데, 세 분야는 선교(World Share USA) 사역, 인문학(출판 강의, 목회자를 위한 인문학 자료 제공) 그리고 부흥운동(기도운동, 다민족 기도 운동 등)이다. 자세한 것은 (323)573-7933 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합동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합동총회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로 통합협회 회장 임영호 목사

미주한인 기독교문인협회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합동총회(이하 문인협회)가 7일(토) 오전 1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통합협회 회장에 임영호 목사가 추대됐다. 임영호 회장은 “두 협회가 하나로 되는 숙원을 이룬 것 감사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인협회가 개혁적이고 확장된 사역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문우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심부름꾼으로 문인협회를 섬기

겠다”고 말했다. 송종록 목사(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방동섭 목사가 기도했으며 김숙영 전도사가 특송을, 임영호 회장이 ‘하나님의 선물(엡4: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태광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송종록 목사가 사회로 열린 총회는 개회선언, 회장인사, 회무기도, 경과보고, 정관제택, 임원선거, 헌안보고, 토의로 이어졌다. 이어 최화량 목사가 축사했으며 정지윤 목

사가 격려사를 전한 뒤 김창호 목사가 축도했다. 통합된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는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통합을 조율해 나갔다. 크리스천문인협회와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의 회장과 이사장이 모여 통합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통합협회 명칭은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로 결정했다. 또한 양 협회가 정기적으로 출간했던 간행물인 크리스천문학과 기독교문학은 크리스천문학이라는 명칭으로 출간하게 된다. 또한 지역별 문학교실을 진행하게 되는데 LA는 시문학교실을 운영하는 중견시인 송인 목사가, 사우스베이는 고영준 목사가, 오렌지카운티는 정정숙 회장이 담당하게 된다. 다음은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임원이다. △회장: 임영호, △부회장: 송종록, △총무: 김종용, △서기: 송인, △회계: 카라리, △편집장: 정지윤, △이사장: 고영준, △이사: 양태철, 정명채, 정정숙, 신경호, 한남욱, 김신웅 <박준호 기자>



효사랑선교회 2023년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자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효사랑 선교회 신년하례식

“요셉과 같은 믿음과 인내로 사역 이어가자”

효사랑 선교회(김영찬 목사 대표)는 7일(토) 효사랑선교회 예배실에서 스태프와 봉사자들이 모여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신년하례예배는 시니어대학 학장 정찬군 목사(예심교회 담임)의 사회로 미라클 포인트 박재만 목사가 기도 한 뒤, 김영찬 목사가 ‘역전의 믿음으로(창 41:38-40)’이라는 새해 메시지를 전했다. 김목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역전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한 자부심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다. 효사랑선교회도 3년이란 팬데믹 기간에도 코로나와 싸우며 더 활기찬 사

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태프진과 봉사자로 섬겨주신 감사님 <기사제공: 효사랑선교회>



미주연세신년조찬기도회

미주연세조찬기도회(회장 정요한 목사)가 7일(토) 오전 7시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새해를 맞아 신년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이

들 헌신으로 섬겨주신 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이다. 2023년의 표어인 ‘역전의 믿음으로’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정체성 찾기 사역과 부모 세대와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대학을 올해 부터는 주 2회(화 목) 운영하게 된다. 어려움은 항상 있지만 요셉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없는 헌신된 봉사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자”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찬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신년 하례와 선물 교환과 만찬으로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 <기사제공: 미주연세조찬기도회>



OC교협 신년시무예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OC교협협의회, 신년시무예배 통해 2023년 사업계획 발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교협을 통해 이어지길”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신년시무예배가 9일(월) 오전 10시 30분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있었다. 주석근 목사(총무)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박재만 목사(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심상은 목사가 ‘새 역사는 변화를 요구한다(마 9:16-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심상은 목사는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것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통과 관습에 얽매어 변화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걸 보게 된다. 교협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 목적대로 연합하여 교회들을 믿음으로 살피게 되는 은혜가 있다. 신학적, 목회적으로 잘 다듬어줄 수 있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교협”이라고 말했다. 심 목사는 “온전한 예수그리스도를 전한 교회마다 교회의 본질인 믿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 삶을 온전히 살 수 있

도록 교협이 힘을 합쳐 온전한 예수를 전해야 한다. 교회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범을 보여주게 되었으면 한다. 교회의 본질을 <박준호 기자>

구 포틀랜드 영락교회 화재로 철거

오리건주 최초 한인 이민교회인 포틀랜드 영락교회(담임 박성하 목사) 옛 교회당이 화재로 거의 소실됐다. 지난 3일 오후 5시경 구 포틀랜드 영락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해 80여 명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화재 1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화재 당시 교회는 비어 있었고 피해자는 없었다. 교회 건물은 1905년에 건립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오리건주 최초 교회인 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건물을 사용하다 지난 수년 동안 영구적으로 폐쇄된 빈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소방당국은 비어있는 건물

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한, 화재가 크게 발생한 탓에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엔지니어들의 평가로 결국 철거 승인이 떨어졌다. 소방당국은 5일부터 철거를 시작했으며, 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일대 차량과 보행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1964년 2월4일 김관규 목사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이후 교회명칭을 포틀랜드 한인 교회로, 그리고 포틀랜드영락교회로 변경했다. 현재 박성하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저지 실버선교회 2023년 정기총회

뉴저지 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 2023년 정기총회가 2월 6일(월) 오후 6시 필그림선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개최된다. 2022년 사역보고와 결산, 2023년 계획 및 예산 발표, 신임 이사와 임원진 소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버선교회의 선교훈련을 수료한 모든 회원들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이문홍 사무총장 732-778-1538, 정동화 선교본부장 201-960-5539

## 애틀랜타 프라미스교회 파트타임 유초등부 사역자 청빙

애틀랜타 프라미스교회(담임 최승혁 목사)는 프라미스랜드(Promise Land, 유초등부 1-5학년)에서 역동적으로 섬겨줄 파트타임 유초등부 동역자를 청빙한다. 프라미스랜드는 65-7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이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이며 이중언어 설교 가능자를 우대한다. 제출 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가족소개, 성장배경, 섬겼던 사역, 부르심) 웹사이트: www.promisech.com 교회주소: 3247 McGinnis Ferry Rd. Suwanee, GA 30024

▲문의 및 서류제출: 최승혁 목사 (Bryan.choe@gmail.com)

##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 신년예배 및 7회기 시무예배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전희수 목사)는 1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에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신년예배 및 7회기 시무예배를 드린다.

▲문의: 회장 전희수 목사 646-270-9771, 총무 김희숙 목사 718-962-5060

## 강제 이송 난민 지원 "빅 허그 캠페인" 16일 마감 예정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가 주도하여 텍사스 주에서 뉴욕시로 강제 이송된 난민을 돕기 위한 "빅 허그(Big Hugs)" 캠페인이 1월 16일(월)로 마감된다. 동참을 원하는 교회와 동포들은 후원할 물품들을 1월 16일(월) 오후 2시~5시에 베이사이드연합감리교회(38-20 Bell Blvd, Flushing, NY 11361)로 전달하면 된다. 현재 필요한 물품은 겨울 옷(새 것 혹은 깨끗하게 세탁된 옷)과 어린이용 신발(새 것)이다.

▲문의: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718-309-6050, 시민참여센터 718-961-4117

# KAPC 뉴욕지역노회 연합 신년감사예배

### "예배로 출발하자" 뉴욕지역 5개 노회 함께 모여



연합신년감사예배후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지역 5개 노회들이 지난 9일(월) 오전 10시 30분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에서 모여 함께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번 연합신년감사예배에 참석한 노회는 뉴욕노회(회장 이윤석 목사), 뉴욕동노회(회장 신철웅 목사), 뉴욕서노회(회장 오영상 목사), 뉴욕남노회(회장 전현수 목사), 뉴욕가든노회(회장 이원호 목사)이다. 신년감사예배는 인도 이윤석 목사(뉴욕노회장), 경배와 찬양인도 뉴욕노회 찬양팀, 대표기도 전현수 목사(남노회장), 성경봉독 신철웅 목사(동노회장), 설교 김성국 목사(부총회장), 바이올린독주 광병국 장로(남노회 소속), 신년사 김재열 목사(남노회부노회장), 합심기도 인도 오영상 목사(서노회장), 광고 이윤석 목사가 맡았으며 총회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총회 뉴욕투어 안

내영상 시흥으로 진행됐다.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는 "광야에서 은혜를(예레미야 31장 1-6절)"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성국 목사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진 오늘날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자 에브라임으로서 이 시대에 부르셨다. 바벨탑과 같이 높아져 가며 쾌락과 물질을 쫓으며 마약과 동성애가 넘쳐나는 이 뉴욕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자로서 우리 총회와 뉴욕지역 5개 노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뉴욕타임스퀘어에서 5개 노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꿈을 꾸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영상 목사(서노회장)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진행됐다. 허상회 목사(가든노회)가 대환

민국과 미국을 위해, 권영국 목



뉴욕교협과 KCS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자비를 베푸는 자, 너도 이와같이 하라"

### 뉴욕교협과 KCS 나눔의 시간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12월 30일 10시 30분 교협 회관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더 많은 양을 내년에도 나눠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KCS(회장 김명미)에서 준비한 선물과 지난 이취임식에서 화환 대신 받은 기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전하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살펴보면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할지 생각하게 될 줄 믿는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2022년 이 다 가기 전에 살펴보고 되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김명미 회장은 "반야야 할 마땅한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며 "교

사(남노회)가 뉴욕복음화와 교계를 위해, 문덕연 목사(동노회)가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임병순 목사(뉴욕노회)가 총회와 뉴욕 5개 노회와 각 지교회를 위해, 박종욱 목사(서노회)가 5월 뉴욕에서 열릴 총회와 준비를 위해 합심기도를 마무리했다. 모든 순서는 이원호 목사(가든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7차 교단총회가 5월 23일부터 26일에 걸쳐 뉴욕 라파디아 힐튼호텔(구 프라자호텔)과 퀸즈장로교회에서 있을 예정으로 인해 총회준비위원회의 모임과 노회원들의 총회등록을 이날 함께 진행했다. (김재상 기자)

협이 공정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교협에 맡겼다"고 전했고 "더 많은 양을 내년에도 나눠드리겠다"고 말했다.

선물 전달식은 유승례 목사(총무) 사회, 송윤섭 장로(회계) 기도, 회장 이준성 목사의 말씀, KCS 김명미 회장 인사로 진행됐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준비한 선물은 각종 생필품과 햇반 박스이며 교회를 통해 교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기금을 전달받은 5개 기관은 심글말 미니스트리(그레이스 임 목사), 선한사마리아인(이정일 목사), 뉴욕주심교회(이지훈 목사), 엘피스선교회(김정길 목사), ACE(강규준 목사) 등이다. (홍현숙 기자)



신년감사예배 후 다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 필라교협 2023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회 "회복과 화합"

### 회복과 화합이 필라교회와 동포사회에 있기를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채왕규 목사)는 2023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1월 8일(주일) 오후 5시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강학구 목사)에서 드렸다.

43회기 필라교협 회장 채왕규 목사는 "회복과 화합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며, 새해에는 무엇보다 덕과 은혜가 가득차서 회복과 화합이 필라에 있는 교회와 동포사회에 있기를"을 기원하는 신년사를 했다.

신년감사예배 및 기도회는 사회 채왕규 목사(회장), 기도 임수병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유재완 목사(서기), 찬양 장기백(영생장로교회), 말씀선포 고택원 목사(새한장로교회),

특별합심기도, 축도 박정호 목사(필라목사회 회장), 광고 송석현 목사(총무)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현 목사(필라한마음교회)는 필라한인교회들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2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를 인도하고 마무리했다. 이어 황준호 장로(회계)의 기도 후에 만찬이 진행됐다.

2부 신년하례회는 사회 임수병 목사(부회장), 한미국가 제창, 신년인사 김성중 필라한인회 회장, 축사 성티나 필라평동 회장, 대통령 신년사 낭독 정대성 필라 영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대우 목사(필라한빛성결교회)의 폐회기도로 순서를 마무리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6) 회심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오! 불쌍한 죄인이여!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가까이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삶이 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약속들에 대해 읽게 된다면 "이 약속들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저주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된다면, "나는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의 부활과 영광 받으심 속에서 죽음이 정복된 것과 천국이 열려진 것과 당신의 부활과 영광이 준비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일만 여

분이 천국의 상속자로 확정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7)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한다

여러분은 사역자들이 제공해주는 빛과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사역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죄와 비참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다. 여러분은 넓게 보면 국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 거룩한 평화와 교회의 질서를 가장 어지럽히며, 우리의 연합과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자는 바로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이다.

younsuklee@hotmail.com



뉴욕목사회 2023 신년하례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귀한 일꾼들을 지원하고 섬김으로"

### 뉴욕목사회 2023 신년하례식

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2023 신년하례식을 1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뉴욕늘기쁨교회(회장 김홍석 목사)에서 열었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뉴욕목사회는 51회기로 반세기가 되었다. 교포 교회들이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목사회에서는 차세대 지도자가 될 귀한 일꾼들을 지원하고 섬김으로 뉴욕 교포 사회가 뉴욕목사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으니 기도와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신년감사예배는 부회장 정관호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인도 김인식 목사, 대표기도 이지운 목사(목회분과 위원장), 성경봉독 하정민 목사(감사), 강사소개 김용걸 신부, 찬양 늘기쁨교회, 설교 이강평 목사(서울 기독교대학교 총장), 봉헌찬양 고재경 집사와 안경순 목사, 봉헌기도 심화자 목사(기도분과 위원장), 광고 안재현 목사(서기), 축도 김명옥 목사(직전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강평 목사는 "선택과 축복" (룻 1:15-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육적, 물질적, 세속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흑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룻의 선택은 하나님이었다. 룻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선택일 뿐 아니라 우리 모

두를 변화시키는 좋은 선택이었다. 너무 늦었다고 좌절과 절망을 선택하기보다 룻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전했다.

2부 신년하례식은 박희근 목사(총무) 인도로 회장 김홍석 목사의 신년 인사 후 찬양과 합심기도로 신년을 시작했다. 합심기도는 미국과 한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오대환 목사(봉사분과 위원장), 뉴욕지역 목회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김정숙 목사(총무분과 위원장), 뉴욕의 복음화(동포사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김영인 목사(국제분과 위원장)가 인도를 했다.

이어 윤세웅 목사, 한문수 목사, 황동익 목사, 전희수 목사, 김정호 목사, 조상숙 목사, 박희소 목사, 변종덕 이사장 등이 새해 덕담을 전했다. 한준희 목사(기획위원장)의 기도도 신년하례식을 마쳤다.

3부는 21세기 희망재단(이사장 변종덕)이 준비한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4부는 이학용 목사(부서기) 진행으로 친교와 나눔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임원들, 김명옥 목사, 김정숙 목사, 박상일 목사, 박영수 목사, 심화자 목사, 이용호 목사, 이종명 목사, 이창남 목사, 조상숙 목사, 허윤준 목사, 현영갑 목사, 변종덕 이사장, ARPC 동북노회 등에서 후원했다.

(홍현숙 기자)

## 피종진 목사 1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주)~3(화) 수원 예성교회 (성창경 목사) 010-2743-5302  
4(수) 오전 성민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4(수) 저녁 서울 한영대학교 대학교회 (담임 한영준 목사) 010-2009-7272  
5(목) 저녁 세종평화의동산 (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축복대성회  
6(금) 오전 국부협신년하례예배 국인일보 12층 루나미텔레콤  
7(토) 오전 복인천중앙교회 (장사무열 목사) 010-7733-9106  
7(토) 오후 광명 동성서광교회 (송명식 목사) 010-3687-0115  
8(주) 저녁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행정담당 김선협 목사 010-7758-7228  
9(월) 오전 서울강남반석교회 강사람 목사 010-8331-3431  
9(월) 오전 뉴헤미야 부흥사역(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신년하례성회 : 부천예림교회  
10(화) 저녁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11(수) 수요일 봉담중앙교회 (이 이사 목사) 010-3133-4244  
12(목) 오전 기독교성서연구원 신년하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고문 박종자 장로 회장 최금호 교수  
13(금) 오전 범일인 김해 목사 010-5591-2325 정수 서울예수서원복음교회 (전성성 목사) 010-5717-4984  
14(토) 저녁 대구 주안산기도원 (원장오영숙 목사) 010-9681-3223 이창재장로 010-3836-8501  
15(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일교회 (고수경 목사) 010-2276-038820  
16(월)~17(화) 서울 새하늘교회 (반송숙 목사) 010-5384-0691  
22(주) 저녁~24(화) 새창원 은혜교회 (담임 피은혜 목사) 010-4586-8642  
25(수) 저녁 서울강남반석교회 기도원 (장사람 목사) 010-7793-9106  
26(목)~27(금)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28(토) 오전 서울 초월교회 (신정희 목사) 010-3721-5554  
29(토) 오후 마리아나 복음방송 MGB TV (김도보라 목사) 010-8954-8956  
29(주) 저녁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 (노회장 신영호 목사) 삼흥부흥운동 연합성회  
30(월) 저녁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세기도원 (원장 김현철 목사) (02) 6181-9282  
주최 뉴헤미야 부흥사역(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 미주교계, 찬양과 기도로 새해 열어

##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2023년의 새해가 밝았다. 미주 지역 각 교회는 특별새벽기도회, 부흥집회, 찬양집회 등 예배로 새해 문을 열어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움츠렸던 대면 모임도 활발히 재개되는 새해였다. 세상은 경제 침체

### △세미한교회 2023년 신년 특별집회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2023년 신년특별집회를 2일(월)부터 6일(금)까지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라는 주제로 가졌다. 이번 집회는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원로)와 이은상 담임목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세미한 청년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4일(수) 집회는 장석환 집사가 대표기도 했으며 권성수 목사가 ‘총리로 형통(창 41:3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성수 목사는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기를 축원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산 요셉처럼 사는 자 되기 바란다. 요셉의 경우 현실속에는 상처에 상처가 더해져서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떤 시련 속에 있어도 함께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 학업과 사업과 살림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모습이 주변의 안민은 자들에게 보이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합심기도 시간을 가진 뒤 권성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영상취재)

여 땅끝까지(행 16: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현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으며 바울이 세계선교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바울에게 있는 영성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다”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너무나 중요한 제자였으며 동역자였다. 디모데의 사역이 가능했는 바울에게 있던 비전과 영성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우리교회는 어떻게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 끝까지 갈 것인가?”라 질문한 뒤 “첫째 다음세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 이는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다. 둘째 영적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란다. 셋째 복음전파를 주업으로 삼아야 한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세대의 뜨거운 영성이 자녀세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주님의영광교회 신년축복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오후 7시 30분에 개최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합심기도 후 신승훈 목사가 ‘그려오라(수 18:1-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승훈 목사는 “가나안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 중 5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았으며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두려움에 젖어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7지파중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땅에 가서 가나안땅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신 목사는 “정탐꾼들이 그림을 그린뒤 그 땅을 7개로 분배했더니 7지파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 “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며 믿음을 갖게 되니 가나안을 정복하고 7지파가 그 땅을 지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성취할 수 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첫째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는 것”이라 말했다. 말씀선포에 이어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른 뒤 합심기도를 했다. 이날 집회는 신승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 △성화장로교회 새해감사 온마음예배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 새해감사 온마음예배가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오후 7시 정공필 목사(라스베가스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됐다. 이동진 목사 사화로 시작된 수요일 셋째날 예배는 이동진 목사의 성경봉독 후, 목사 부목자 중창팀이 특별찬양했다. 이어 정공필 목사가 ‘그리스도의

와 불황을 예고하고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안고 시작했다.



세미한교회 2023년 신년특별집회에서 권성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신년 첫 새벽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현수 목사



은혜한인교회 은혜이슬 특별새벽부흥회 첫날 집회에서 한기홍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주님의영광교회 신년축복성회에서 신승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화장로교회 새해감사 온마음예배에서 정공필 목사가 축복기도하고 있다

편지인 증인 공동체(고후 3: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정공필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라며 “마치 터마이트가 집을 갉아 먹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사고방식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봉투와 같다. 하지만 길모퉁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며 “내 삶속에 기록되어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있다는 것이고, 둘째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

# 서부교계 기사판

## 새벽이슬교회 신년 말씀집회

새벽이슬교회(담임 윤해규 목사)가 새 예배당 입당을 기념하며 2023년 신년 말씀집회를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지어다’는 주제로 12일(목)~15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전남수 목사(알칸 사제자들 교회). 새벽이슬교회 주소는 600 W. 6th st. Tustion CA 92780이다. ▲문의: 949-241-1123

## 2023년 신년하례 및 선교사자녀 장학금 전달식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2023년 신년하례 및 선교사자녀 장학금 전달식이 14일(토) 오전 8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562)399-2022, (213)500-5449

## 나성한인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예배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교회창립 47주년 기념예배를 15일(주일) 1부, 2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323)221-9531

##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창립 120주년 및 한인미인 120주년 기념음악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교회창립 120주년 및 한인미인 120주년 기념음악회를 15일(주일) 오후 6시30분에 갖는다. 이날 음악회는 소프라노 이주영, 바리톤 이응광, 첼리스트 장성찬, 바이올리스트 김기원, 남유선, 마이클 임, 피아니스트 이소영, 한실희 등이 출연한다. ▲문의: (808)536-7244



벤추라카운티한인목회자회 송년모임이 LA한인타운에서 열렸다(사진=벤채근 목사)

## 벤추라 카운티 교역자회 송년회 및 신임회장 선출 신임회장 이요셉 목사, “사랑과 신뢰로 뭉쳐 저”

옥스나드, 카마리오 등지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벤추라카운티 한인목회자회 2022 연 말송년모임이 지난 12월18일에 LA한인타운의 중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이요셉 목사(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담임)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송년회는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뭉치고 협력하여 연합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힘을 합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현재 벤추라카운티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는 11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선교를 위해 때로는 구제활동과 나눔 운동을 함께 펼치고 이 지역에 산불이 낮을 때는 피해가 돌기를 위해 공동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연대의식도 강하다. 그래서 덩치만 큰 다른 지역 교회협의회가 전혀 부럽지 않은 사랑과 신뢰로 뭉쳐진 교역자회다. 2022년 회장으로 김재호 목사(뉴베리파크 브릿지교회 담임)가 수고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평강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평강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및 원로목사 추대 담임목사 송금관, 원로목사 이상기

평강교회는 2대 담임목사 송금관 목사 취임식 및 이상기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를 8일(주일) 오전 11시 은혜가운데 드렸다. 송금관 목사 인도로 열린 예배는 안용대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우진 성도의 특별연주가 있었다. 이어 이상기 목사가 ‘내 보좌에 얹게 하리라!(계 3:20-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상기 목사는 “5년 전부터 후임자를 위해 기도했으며 후임목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셔서 임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며 “마지막시대에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있다. 물질세계는 물론 영적 세계 역시 동일하게 메말라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목사는 “본문은 이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환란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 △은혜한인교회 은혜이슬 특별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은혜이슬 특별새벽부흥회를 2일(월)부터 7일(토)까지 개최했다. 첫날 오전 5시30분에 열린 집회에서 한기홍 담임목사가 ‘다음세대와 연합하



### 목회자 절반 이상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상은 '이것'

#### 교회에 영향 미치는 가장 큰 우상에 '돈' 꼽아

목회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상으로 '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

여 섬길수 없다"(마 6:24)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맘모니즘(Mammonism·배금주의)을 '경계대상 1호'로 꼽고 있는 것

이다. 10일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에 따르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2%가 돈을 지목했다. 안락함(27%)과 권력(5%), 인정(2%), 명예(1%) 등이 뒤를 이었다. 목회자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됐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종교사회학 교수는 "목회자들부터가 돈에 얽매이면 안 된다. 목회자들이 먼저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돈 없이도 거뜬히 사역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줄 때 성도들의 가치관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NCKK "새해 한반도 평화 정착, 세계교회 연대에 앞장"

#### 이홍정 총무 "평화협정 위한 100만명 서명 유엔에 전달할 것"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총무 이홍정 목사)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운동'을 전개한다. NCKK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야호텔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핵심 활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운동, 세계 교회와 연대 확대, 설립 100주년(2024년) 기념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날 이홍정 총무는 "지금과 같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장기화할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커진다. 양 정부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상호 체제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NCKK는 범시민단체들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행동'으로 모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 세계 100만명의 평화협정 체결 서명을 받아 유엔(UN)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연락이 끊긴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만남을 추진해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교회와 연대도 강화한

다. 세계교회가 직면한 선교 현안인 정의와 평화, 기후 위기, 차별과 혐오, 가난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제10차 한독교회협의회, 제15차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총회 등에 참석하고 일본과 간도지진 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치는 등 국제 현안에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

NCKK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 사업은 올해도 계속된다. 하반기에 온라인 아카이브를 공개하고 '한국교회 100대 방주지와 100대 인물'을 선정하며 한국사회와 함께 호흡한 기독교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 활동, '한국교회 시민 아카데미' 운영 등 기존 사업들도 이어간다.

이 총무는 "올해는 국민이 민주사회 진보를 위해 한반도 평화, 생태 정의, 생명안전 등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변혁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울진산불 피해 주민에게 건네진 특별한 '선물'

#### 예장백석 총회, 모금 운동 통해 새집 지원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산불 피해 주민에게 특별한 선물이 건네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종현 총회장)가 9일 울진군 북면에 79㎡ 넓이의 보금자리를 선물한 것. 준공 허가를 마치고 새 집에 입주한 주인공은 해뜨는교회의 김유화(여·65) 집사다. 그는 지난해 3월 울진산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김 집사의 집에는 나이 든 노모와 반려견이 함께 살고 있었다. 해뜨는교회 김창기 목사는 산불 소식에 김 집사 집으로 달려가 노모를 구하고 직접 화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인근의 산불이 더욱 거세지면서 결국 주택은 완전히 불에 타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접한 예장백석총회 임원들은 즉시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고 김 집사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건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총회는 모금운동을 벌여 건축비용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건축회사인 동해하우징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했다. 당초 11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반 공사 등에 좀 더 정성을 들

이기로 하면서 입주가 미뤄졌다. 마침내 공사가 완료된 후 새 집 앞에 선 김 집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집사 곁에서 아픔을 함께 한 김

목사는 "고난받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큰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백석 총회 관계자는 "백석총회가 건립한 김 집사의 새 보금자리는 산불 피해 이후 한국교계의 지원으로 입주한 첫 사례가 된다"며 "앞으로도 총회는 김 집사를 포함한 이재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울진군 이재민 180여 가구 중 새 집을 짓고 임주를 마친 이재민은 10가구도 되지 않는다. 그동안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였던 울진군이 올 겨울 북극한파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면서 임시주택에 있는 이재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고 있다.

### '어게인 1973' ... 한국교회 회복 넘어 부흥의 역사 다시 쓰자

####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발대식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은 10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아트홀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기념대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교단 총회장과 교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회복을 넘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자"고 다짐했다. 기념대회는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이자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자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가 통역을 맡는다.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초청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전도대회는 한국 기독교사에 기념비적 사건으로 손꼽힌다. 5월 3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당시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총 470만명으로 결신자 수는 8만명이 넘었다. 이 대회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기념대회 하루 앞선 6월 2일에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청소년 집회'가 진행된다. 50년 전 여의도광장에 모였던 10대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듯,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자는 취지다.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인 윌 그레이엄이 주강사로 나선다.



### "코로나 이후 불건전한 종말론 확산..."

#### 한국교회 이단탈퇴자 심리 치료 도와야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을 악용한 잘못된 종말론이 번지고 있다. 특히 이단들은 전염병, 전쟁,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종말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단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종말론 확산을 경계하면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건강한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것을 조언했다. 조민은 바른미디어 대표인 10일 "코로나 기간 진행한 이단 관련 상담의 대다수가 종말론에 대한 것이었다"며 "종말론을 활용한 이단은 항상 있

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 영향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코로나 백신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연결하는 사례를 대표적인 잘못된 종말론의 예로 들었다. A 단체의 경우 '짐승의 표인 백신을 맞은 이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종용하며 한국을 떠나 도피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종말론 이단들은 자신을 교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과 결을 달리하며 '시대를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

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로 일반 성도들을 손쉽게 미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언서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종말론을 심도 있게 공부해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재는 총신대 교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이 오는 게 '무서운 심판'이거나 '세상의 끝장'이 아니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성도들이 깨달아야 한다"며 "재림한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며 우리와 직접 대면해 교제하신다. 성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도록 목회자들이 건강한 종말론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비롯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조 대표는 "이단들은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등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1순위로 공격한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며 "또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단에서 빠져 나온 탈퇴자들을 위한 교리교육, 심리지원, 경제적 자립 등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머니 목소리로 듣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성경

#### 스타트업 보이셀라 AI 기술 합성 오디오 성경 제작

헤드셋을 끼고 화면에 나타난 성경말씀을 읽는 김국희(77) 권사의 윗입술이 떨렸다. 입이 말라 떨어진 거라며 애써 태연한 듯 말하지만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런 김 권사의 모습을 아들 김병희(46) 목사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4일 김 권사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보이셀라'가 있는 서울 강남구 스튜디오에서 한 시간가량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녹음된 김 권사 목소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합성해 성경 66권을 읽어주는 오디오 성경이 된다. 이날 작업은 김 목

사의 권유로 이뤄졌다. 그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서울 명성교회(정우홍 목사)에서 음악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김 목사는 "(내가 먼저) 찬양음반과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이셀라의 오디오 성경 애플리케이션인 바이블리에 올렸다"며 "어머니가 제 찬양을 계속 들으신다는 걸 알았고, 어머니 목소리로 읽어주는 성경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에게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은 목소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지금도 제

일 유복하고 행복한 시절이라 말할 정도로 우리 집은 늘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럼에도 어머니는 믿음을 놓지 않으셨고, 나에겐 신앙의 스승이었다"고 회고했다.

'지금도 제일 행복한 때'라 여기는 김 목사의 눈에 최근 어머니의 삶이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쓸개를 떼내는 등 수술만 9차례나 했다"면서 "5년 전엔 직장암 판정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방사선 치료만 받고도 건강하시다"고 했다.

김 목사는 "(녹음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롯이 어머니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살라'며 저에게 하신 말씀을 아이들에게도 하신다"며 "어머니께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오디오 성경을 통해 아이들에게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바이블리에 첫 오디오 성경을 만든 고 하용조 목사와 이재훈(온누리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목사 등 목회자들의 목소리로 만든 성경을 들을 수 있다.

##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b>FAMILI Study</b>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org/kor/index.ph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mission 선교의 창 (20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난관을 돌파한 스투바벨(Zerubbabel)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년 초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 소망을 갖는다. 꼭 이루고 싶은 바램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과 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은 22,000명쯤 된다. 그들도 올해에 다양한 사역적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정이다. 어떻게 하면 그 과업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스가라 4:6) 고 말씀하고 있다. 찬란한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며 목표에 도달한 이들은 많지 않다. 사명이 클수록 넘어야 할 산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유대민족의 지도자였던 스투바벨이 어떻게 난관을 돌파하며 성전을 완공했는지 돌아보며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차 귀환은 고레스의 온건한 식민지 외교정책의 결과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스투바벨은 B.C. 538년에 선포된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유대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인물이다. 그 때가 B.C. 537년이었으며 돌아온 백성의 수는 총 49,897명이었다(스 2장).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생긴 기적적인 일이었다.

### 2. 성전 건축을 시작한 스투바벨

스투바벨은 고레스의 칙령(스 1:1-4)에 따라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난민과 다름없는 백성들을 결집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스 3, 4장). 그 때는 B.C.536년 태양력으로는 5월이었다. 이 시기는 근동 지역의 기후가 건조

전히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하던 다른 이방 민족들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일을 방해하였다. 이렇게 외적인 도전 외에 유대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을 잃고 말았다. 결국 재건 사역은 바사 왕 고레스 제4년 (B.C.536년)에서 다리오 즉위 때(B.C.522년)까지 약 14년간 중단되게 되었다. 이처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 3. 난관을 돌파하고 성전을 완공한 스투바벨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사명이 클수록 넘어야 할 산도 높다.  
믿음의 영웅들은 도전하는 세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선교적 과업은 하나님의 영권으로 나아갈 때 거칠 것이 없다.

### 1. 유대 민족을 귀환시킨 스투바벨

스투바벨은 누구인가? 그 이름은 “바벨론의 씨,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란 뜻이다. 그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업적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스투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자,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아들로써 다윗 계보를 잇는 왕의 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쳐 갈 즈음 세계사의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패퇴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1

한 때이므로 성전 재건 작업을 착수하기가 용이하였다. 현대 성전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유인즉 그들은 이 건축 공사에 거부되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이 동참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 중 상당수는 과거 앗수르의 식민지 백성 이주계획에 따라 사마리아 땅에 옮겨진 이방인들이었고 일부 이스라엘인들도 모두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혈통적, 종교적 순수성을 완

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1:8). 이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투바벨과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다리오 왕 2년(주전 520년) 6월 초하루”(학 1:1)였다. 즉, 대부분의 백성들이 낙담하거나 아니면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성전 재건을 시도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였다. 성전을 건축하라

님을 섬기게 하였다(스 6:16-18). 남 유다가 BC 586에 망한 후 70년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였다(스 4:9).

### 4. 스투바벨 성전의 의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케 하는 두 기둥은 율법과 성전이 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율법에서 떠나는 것과 성

중에 의한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의 일차적인 증거이다. 흔히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70년을 솔로몬 성전 훼파에서 스투바벨 성전 재건까지로 본다. 그러나 스투바벨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으며 대제사장은 우림(Urim)과 둠뫼(Thummim)를 소유하지 못하였다(스 2:63).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건물로서의 성전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성전의 실체로서 메시야가 찾아 올 것을 대망하게 되었다.

### 맺음 말

스투바벨은 유대 총독으로서 백성을 귀환시킬 책임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의 임무를 완수해야 할 사명자였다. 그는 훼파된 땅에서 가진 것 없는 난민과 같은 사람들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더구나 내외적으로 방해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것은 넘기 어려운 큰 산과 같았다. 큰 산이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모세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었다. 여호수아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다. 다윗에게는 거인 골리앗과 시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는 사울 왕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고자 하는 성전은 무엇이며 그 길목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의로운 사역일수록 사탄의 도전은 강렬하다. 앞길을 가로막는 산이 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거친 풍량이 싫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면 그 배는 존재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사명인은 고독하다. 고난이 있다. 하지만 영광스런 가치와 상급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세력에 주눅 들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해야 한다. 혹여 원치 않는 난관에 맞닥

뜨려졌을 때 안절부절 하기보다 스투바벨에게 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권으로 나아가면 거칠 것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게 하실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나? 내가 스투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jrsong007@hanmail.net



##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 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갈릴리 바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때 놓칠 수 없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담수 호수이지만 전통적으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갈릴리 바다(요6:1)로 불렀고, 마태는 갈릴리 해변(마4:18)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Lake of Galilee)와 갈릴리 바다(Sea of Galilee)는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언어적인 이유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호수와 바다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Yam(ים)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다를 의미했습니다. 둘째는 갈릴리 규모가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호수와 바다로 구분 없이 불렀습니다. 갈릴리는 다양한 이름을 자랑합니다. 구역에서는 긴네렛

(Chinnereth, 민34:11, 수 13:27), 기노사(Ginnosar)바다, 게네사(Gennosar) 호수, 디베라(Tiberias) 바다, 기네사렛(Gennesaret) 호수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다양한 기능, 외형적 특징, 또 갈릴리 호수변에 발달된 여러 도시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지중해를 큰 바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작은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둥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아르벨(Arbel) 언덕에서 호수를 내려다보면 둥근 모습이었고, 둥근 모습이 마치 다윗 왕 등이 즐겼던 연주하였던 수금(히브리어로 ‘키노르’)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구역 성경은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키네렛(Kinneret)

호수라고 했고, 혹은 게네사렛(Gennesaret) 호수라고 불렀는데 하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키노르(Kinor)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천연 담수호입니다. 호수의 둘레는 약 60Km이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이며 면적은 대략 166km<sup>2</sup>에 이릅니다. 가장 깊은 곳은 북동쪽에 있으며 평균 깊이는 44-48m이고 평균 깊이는 25.6-26m입니다. 호수의 물은 바닥에 있는 수많은 지하샘과 요르단 강에서 유입되는 물입니다. 강은 호수를 통과하여 약 39km 남쪽으로 계속됩니다. 골란 시내와 대로와 같은 다른 작은 수역은 갈릴리 언덕에서 물을 배출합니다. 갈릴리 바다 수면은 해수면보다 680 피트나 낮습니다. 갈

릴리바다의 낮은 수면 온도와 바다를 둘러싼 산 특히 헬몬산의 온도 차이로 엄청난 폭풍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복음서는 갈릴리의 폭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큰 바람과 폭풍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밤중에 기압 차이로 만들어지는 갈릴리 바다 폭풍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바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

다보이는 언덕에서 선포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33개의 기적(표적)들 중에 18개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 도시들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전체 식수의 40% 이상을 공급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50여 종의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어종은 한국의 큰 붕어를 닮은 베드로의 고기로 알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다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대 해양 고속도로(Via Maris)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Via Maris)는 북쪽 제국들과 남쪽 이집트를 잇는 주요 교통로였습니다. 이 고속도로로 헬라 제국,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 나아가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도시들이 세워져 번성을 누렸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통해 많은 무역상이 왕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국제도시들이 되었습니다.

이 해양 고속도로(Via Maris)가 갈릴리 주변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어업입니다. 갈릴리의 풍부한 어류는

어업이 번창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230여 척의 어선이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둘째는 갈릴리의 물을 통해 관개가 발달하였고 농업이 번창했습니다. 셋째는 상업입니다. 해양 고속도로(Via Maris)를 통해 왕래하는 상인들이 생선과 곡물의 판로를 개척해서 갈릴리는 번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교통과 번성한 어업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관개로 발달된 농업이 갈릴리 호수변에 다수의 도시들이 발달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다라, 거라사, 디베리아, 가버나움 등등이 갈릴리 호수변 도시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변에는 9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역사의 능선을 타고 개명을 하기도 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수의 나룻배와 무역선이 운행하였다고 전합니다. 수년 전에 갈릴리에서 발굴된 고대 목조선은 15명 정도의 승객을 수송 가능한 나룻배 혹은 유람선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넌 배는 갈릴리 바다 나룻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hap1207@hotmail.com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 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삼하 1:11~18) 찬 91장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자살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사울이 자살하는 동안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에게 받을 칭찬과 상급을 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다윗에게 죽

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며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며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도 다윗의 슬픔에 동참합니다. 백성들의 다윗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타인을 낮춘다고 내가 높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타인을 높이고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 화 당연한 일, 당연히 기도 (삼하 2:1~7) 찬 364장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는 일찌감치 기를 부음 받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로 돌아오는 당연한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은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 수 삶으로 전하는 복음 (삼하 3:22~39) 찬 586장

사울이 죽은 후에 북방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그 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합니다. 성도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해를 풀었고(삼하 3:37),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진심을 본 사람들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했다'(삼하 3:36)고 합니다. 성도는 '말로 설명'하기 전에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복음의 실재를 살아내야 합니다.

### 목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지 마시다 (삼하 4:1~12) 찬 516장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못마땅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보셋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인 '바아나와 레갑'은 전세가 다윗에게 기울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칭찬 받을 줄 알았던 바아나와 레갑은 오히려 다윗에게 해 처형을 당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아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다윗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위해서 했던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에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삼하 5:1~12) 찬 626장

이스보셋이 바아나와 레갑에 의해서 살해당한 후, 북방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며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다윗이 삼십 세에 헤브론에서 남방 유다의 왕이 되어 칠년 육 개월을 다스렸고, 그 후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삼십삼 년을 다스리

니다. 다윗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 토 은혜를 입은 예배자로 삼시다 (삼하 5:6~12, 삼하 9:11~13) 찬 441장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부스 사람들은 장애인(맹인, 다리 저는 자)을 빚대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조롱한 여부스 사람들에게 대하여 '왕의 집에 들어오지 못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말

했습니다(삼하 5:8). 다윗이 세운 기준과 범입니다. 그러나 후에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상에 초대받아서 먹고 마십니다(삼하 9:11-13). 율법의 판결 위에 부여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 기독교 교육 (19)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 끝을 염두에 둔 시작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크리스천들은 끝을 염두에 두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끝을 염두에 둔 사람은 방향을 압니다. 그 끝을 향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한눈팔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끝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학기 첫 시간에 강의계획서를 받으면, 어떤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어떤 학생들은 휴강과 방학이 언제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말고사를 염두에 둔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공부합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파티, 동아리 모임, 각종 행사 쫓아다니다가, 시험이 코앞에 다가와서야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기말고사를 염두에 두고 공부한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늘 그에 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말고사 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5:21, 23) 하는 학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학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모든 크리스천의 선배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7-11에서 끝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끝이 멀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주적인 의미이든 개인적인 의미이든 끝이 멀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이 임박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끝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끝을 염두에 둔 삶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먼저 7절에서 끝을 염두에 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성과 상식을 잃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고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크리스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므로 사람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마 24:12). 바울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무정해진다고 했으며,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딤후 3:1-5).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것을 아는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임과 동시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고, 또한 조건없이 하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람이 허다하고 다양한 만큼

죄도 허다하고 다양합니다.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대접을 언급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대접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모두 가정에서 모였습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재워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핍박을 피해 다니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봉사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육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누구에게나 은사가 적어도 한가지씩은 주어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은사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11절에는 은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는 은사와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말하는 은사를 사용할 때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를 주장하는 말을 하지 말고, 심리학적인 원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봉사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듯이 사역해야 합니다.

이렇듯 끝을 염두에 둔 삶을 사는 사람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2023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끝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남아시아 B국
- ▲ 종족명: 루모 종족
- ▲ 인구: 인구 30,000명
- ▲ 종교: 대부분 크라마(자생 종교), 기독교는 1-2천명
- ▲ 기타: 문맹률 90%(대부분 공용어도 하지 못함)

▲ 프로젝트 소개: 1994년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고 2013년 SIL이 구약 성경 번역을 시작했다. 문해 교육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 프로젝트 진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스가랴를 초역했고 2018년 5월부터 성경 활용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문해 교육 사업은 2017년에 시작되어 5개 마을에서 기독교 사역자들이 무보수로 주 4회 읽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남녀반 시간을 달리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참여하고 있다)

- ▲ 기도제목:
  1.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번역 사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2. 현지인 번역자들이 성경 활용을 진행할 때 지혜 주시도록
  3. 읽기 교실을 무보수로 운영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이 계속 성실하게 가르치고 주민들이 읽기에 익숙해져 성경을 읽고 변화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선교 편지 일본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코로나와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도 작년 11월 말에 코로나에 걸린 후에 말로만 듣던 코로나를 처음으로 함께 경험하게 되었지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도 많으면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고 적으면 10만 명 전후이지만 연말연시가 지나면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 거라는 예상에 모두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선교 사업과 코로나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교회 모임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코로나 이후에 3년 이상 전혀 교회에 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믿음은 너무나도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실 수 없는 사정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음이 참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서 확진되면 교회에 온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관련된 남편의 직장, 자녀의 학교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저도 무리하게 교회 출석을 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도 섬프 캠프 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생겨 정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코로나 속에서도 노마스크로 사는 사회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일본은 아직도 실외까지도 99% 마스크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무사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아쉬운 것은 좀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시가와상이라는 부인이 어린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아직은 남편분과 장남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원을 다니는 어린이의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즘은 조금씩 문의를 하고 견학, 방문하는 일이 좀 잦아졌습니다.

일본 선교는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구도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이고 또 숙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교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녀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찾았던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교회의 교인이 되고, 세례까지 받은 분들이 점점 교회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전도 대상자와 구도자의 만남이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녀 레이처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대학에 원서를 넣는 중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꼭 함께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신년을 맞이하여 코로나의 위기 등 모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어 섬

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늘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강민숙 선교사 올림

[ 기도 제목 ]

1. 신년에 세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2. 교회와 선교원이 영적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3. 이시가와상 가족이 모두 교회에 등록하도록
4. 전도 대상자와 구도자가 더욱 많아지도록
5. 부활절에 꼭 세례받는 분이 계시도록
6.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더욱 많아지도록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MA주 FEEDING HILLS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회(AG)소속 갈보리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현 목사님을 이어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 나이: 40세 부터 50세 까지
  - 경력: 이민목회 3년이상(부목사 경력 포함)
  - 교단: 본 교단 목사 및 타 교단 목사는 하나님의 성회(AG)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언어: 2중 언어(한국어와 영어)소통이 가능한 분
  - 신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항이 없는 분으로 영주권 후원도 가능
  - 학력: M.Div.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분

- 제출서류:
  - 이력서(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1부
  - 본인 및 사모의 자기 소개서 각 1부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 추천서 2부(응시자가 담임 목사일 경우 교단 및 지방회, 부목사일 경우 담임 목사와 그외 1인)추천인이 연락처 기재하고 직접 제출
  - 후보 2회분(현 사무 교회 최근 3개월 이내)
  -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1부

제출 마감일: 2023년 2월 28일

제출 및 문의: 제출 및 문의: E-MAIL(cavaryassembly2023@gmail.com)로 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담임목사 청빙용으로만 사용하며 청빙 완료후 폐기됩니다.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Calvary Assembly of God)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청빙 조건: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 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2.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분
  3. 만 55세 이전의 나이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4.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 내 체류 및 목회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 및 자신의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신학자, 목회자 인용)
  3. 학력 증명서
  4. 속해있는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5. 신학교 교수 및 명망 있는 목회자의 추천서 (추천자의 연락처 포함)
  6. 최근 설교 영상 2편 (온라인 링크) \* 설교 원고 포함

-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 마감일: 2023년 3월 15일
  3. yspastor2023@gmail.com으로 보내시고 첨부파일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장로교회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http://www.yspc.org | 215-542-0288

영생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신앙 에세이

Divine Coupling, 디바인 커플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뉴로 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갈 때 선생에게 발생하는 뇌파가 학생에게도 똑 같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생이 집에서 배운 것을 복습할 때도 선생에게 배운 때와 같은 호르몬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 스승과 제자가 닮는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녀가 닮거나 부부가 서로를 닮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희열이 솟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님과 영적 뇌파가 하나 되는 것을 두고 디바인 커플링, 거룩한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기꺼이 이삭을 바쳤습니

다. 사람의 상식에도 윤리에도 벗어나는 일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로 무너진 사람이지만, 평생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디바인 커플링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디바인 커플링이 일어난 제자들로 인하여 일어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스스로 죄인의 죄수라고 고백한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로 오직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삶을 드린 바울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닮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디바인 커플링,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



류응열 목사  
(야성톤중앙장로교회)

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 무릎을 꿇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영광스런 기쁨이지만, 사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더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이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연합, 그 때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가장 의미 있는 땅 위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중격마

새해에는 새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용두사미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헬스장에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다가 대부분 도중하차를 하게 됩니다. 정초가 되면 금연으로 인해 담배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단도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예배, 봉사, 전도 등,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못가서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에게 실망하기 싫어서 계획도 안 세우고 결심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운 계획이 실패로 돌아 가더라도 또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계획해서 실패하는 것이 무계획 속에 성공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하되 굳은 결심, 확고부동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뚝은 나오미를 따를 때 죽어도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걸고 결단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라고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서 최후 승리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을 배나 받기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기에 하늘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축구 때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중격마"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꺾이지 않는, 백절불굴의 굳은 결심. 견고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번 결단을 내렸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꺾음을 향하여 전진하고, 뛰어넘고,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역 성취를 위해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구름, 침 뱀을, 채찍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흔들림 없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뜻을 정했다면,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는 중격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라"(누가9:51) bible66@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은 전염성 질환의 대표적인 유행성 감기부터 합병증인 폐렴이나 결핵 등 전염성 호흡기 질환도 있고 흡연이나 화학물

히 다스리지 않으면 급성부비강염(축농증)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암이나 신장 투석, 기관지 천식과 같은 폐



과 만성 기관지염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인데 가장 주된 원인은 흡

흡연은 또한 폐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폐암은 현재 한국인의 암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하다. 폐암은 조기(1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퍼센트 이상이지만 조기 검진 방법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 아시아계 비흡연 여성에게 발생하는 폐선암(adenocarcinoma)은 말기 폐암이라 하더라도 탈시바(tarceva)라는 경구용 정제로 만들어진 항암제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연장시킬 수 있다.

▲문의:213-383-9388

유행성 감기부터 폐 질환까지 다양

질 등에 만성적인 노출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외부에 대해서 기관지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폐의 염증 질환인 기관지 천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코 점막이나 눈을 통해서 전염되는데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증상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 내에 완치된다. 하지만 이를 적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런 위험이 더욱 크다.

폐결핵은 과거에 한국인들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었는데 심하게 결핵을 앓고 나면 폐에 상처를 남기고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할 수 있다. 요즘은 내성결핵으로 기존 항결핵제가 듣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본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폐기능

연이다. 성인이 되면 정상적으로도 폐 기능이 일 년에 1% 정도 감소할 수 있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3퍼센트 이상 폐기능이 줄어서 결국 심한 호흡 곤란 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치료는 금연이며 담배를 피우면서 치료를 받을 때는 그 효과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2023년 봄학기 개강부흥회·강의

개강부흥회: 너를 부르신다 (마태복음 4:19-20)  
2023년 1월31일(화)-2월2일(목) 오후8:00

Th.M 설교학 강의: **현대 내러티브 설교의 철학과 기법**  
2023년 1월 31일(화)-2월3일(금) 오전 9:00-오후4:00

**권호 목사**  
한국 합신대 교수,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  
M.Div.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임도곤 목사**  
한국 침신대 교수,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  
M.Div.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M.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မ်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대학부	신학사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신도 여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설교학)	2년	M.Div학위 학력자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3년 1월27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3년 1월2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3년 1월31일(화) - 2월2일(목) 오후 8시  
문의처: 학감 정기대 목사: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경 전도사: 646-708-1101  
사무실: 718-463-7163  
주소: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